

국립국어원 2009-01-37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25-14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7

-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정 성 미(강원대학교)
- ▣ 조사 지역 : 강원도
- ▣ 조사 항목 : 한지 공예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정성미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6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9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4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7
2.1. 제보자_17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7	
2.3. 조사 장소_18	
2.4. 조사 내용_18	

2.5. 조사 결과물_19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생애 구술	23
1. 김원자 제보자	23
1.1. 출생지_23	
1.2. 어린시절_25	
1.3. 결혼생활_26	
1.4. 한지 공예_27	
1.4.1. 지호 공예의 재료	1.4.2. 지호 공예의 제작과정
1.4.3. 지호 공예의 제작도구	1.4.4. 지호 공예품
1.4.5. 지승 공예	
2. 이부옥 제보자	39
2.1. 출생지_39	
2.2. 부모님_40	
2.3. 어린시절_41	
2.4. 결혼생활_43	
2.5. 한지 공예_44	
2.5.1. 한지 공예의 종류	2.5.2. 작업에 걸리는 시간
2.5.3. 전지 공예 제작과정	2.5.4. 옷칠과 콩땀
2.5.5. 한지	2.5.6. 말리기와 풀칠
2.5.7. 문양	2.5.8. 물풀칠
2.5.9. 백골	2.5.10. 배접
2.5.11. 탈지공예, 탈색공예, 고색공예	
2.5.12. 초배치고, 색지치고	2.5.13. 칼선을 넣다
2.5.14. 한지등 부분명칭	2.5.15. 접착제
2.5.16. 전지 공예 도구	2.5.17. 과반
3. 장성우 제보자	67
3.1. 지승 공예_67	
제4장 조사된 어휘	74
1. 한지 공예란?	74

1.1. 전지 공예_74	
1.2. 지승 공예_75	
1.3. 지호 공예_76	
1.4. 지화 공예_76	
2. 전지 공예	77
2.1. 전지 공예의 구성_77	
2.1.1 골격, 목골, 백골	2.1.2. 문양
2.2. 전지 공예의 재료_83	
2.2.1. 색한지, 뿌림지, 염색지, 구김지, 이합지, 삼합지	
2.2.2. 감자풀, 옥수수풀, 밀가루풀, 누시리하다	
2.3. 전지 공예의 도구_85	
2.3.1. 재단칼, 문양칼, 쪽가위	2.3.2. 자
2.3.3. 붓	2.3.4. 헤라
2.4. 전지 공예의 제작과정_87	
2.4.1. 백골 만들기	2.4.2. 초배 치다
2.4.3. 색한지 치다	2.4.4 합지해서 문양따다, 빠지다
2.4.5. 배접하기	2.4.6. 문양 붙이기
2.4.7. 물풀칠, 물풀	
2.4.8. 감칠, 옷칠, 호두기름, 동백기름	93
2.5. 전지 공예품_94	
2.5.1. 빗집	2.5.2. 머릿장
2.5.3. 지갓	2.5.4. 고비
2.5.5. 정접시, 구절판	
2.5.6. 사각과반, 육각과반, 팔각과반	
2.5.7. 오방색상자, 육각태극함, 팔각태극함	
3. 지승 공예	98
3.1. 지승 공예의 구성_98	
3.1.1 지승실	3.1.2. 뽀(본)
3.2. 지승 공예의 재료_99	
3.2.1. 한지	
3.3. 지승 공예의 도구_99	
3.3.1. 가위	3.3.2. 물 스펀지
3.4. 지승 공예의 제작과정_100	
3.4.1. 지승실 꼬기	3.4.2. 고리 만들기
3.4.3. 씨줄넣기, 씨줄빼기	3.4.4. 염색하기

3.5. 지승 공예품_103	
4. 지호 공예	104
4.1. 지호 공예의 구성_104	
4.1.1. 틀	4.1.2. 본
4.1.3. 문양	
4.2. 지호 공예의 재료_105	
4.2.1. 닥죽, 한지죽, 종이죽	4.2.2. 삼베천
4.2.3. 접착제	
4.3. 지호 공예의 도구_106	
4.3.1. 사포	
4.4. 지호 공예의 제작과정_106	
4.4.1. 종이죽 만들기	4.4.2. 뽕(본) 만들기
4.4.3. 삼베천 붙이기	4.4.4. 한지죽 붙이기
4.4.5. 건조하기	4.4.6. 보충하기
4.4.7. 사포질	4.4.8. 색칠하기
4.4.9. 콩땀하기	4.4.10. 마감재
4.5. 지호 공예의 완성품_110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13
참고문헌	116
부 록	117
찾아보기	133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개요

1. 조사 개요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

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도감의 분류보다 400여 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

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를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¹⁾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2.1. 현장 조사 지침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궤 → 참궤(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ㅡ]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기’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기’이면 ‘기’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스’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샬람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밧이(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듬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감(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ㄱ’과 ‘ㄴ’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써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춘),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ㅛ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ㅕ>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물(馬), 풀(밭), 뽕다(뽕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ㅓ’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ㅏ’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ㅕ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ㄱ>기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괴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ㄻ. ㄴ>네 : 괴기>계기, 괴비>계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되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ㄿ. ㄷ>디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둑>귓둑,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ㄴ>니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꿩>꿩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ㅂ>기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ㄱ>ㅂ : 주직>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ㅂ. ㄱ>ㅎ : 아곱>아흡, 뚝>뚛, 숙->술-(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블(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종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예나 이에 따른 예술 기법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다같이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정조 때 이덕무의 시문 전집인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보면 중국에서는 공화(箒畫)라는 것이 있는데 ‘손으로 물건을 포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왕사정이 지었다는 『향조필기(香祖筆記)』에는 “왕추산이란 사람이 공화를 잘 그렸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작품인 「지직화조도(紙織花鳥圖)」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지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공예품으로 활용되었고 한지자체만으로도 필요한 문방 용품이나 고건축 의장으로도 이용되었다. 또 창호지, 벽지, 장판지, 휘장, 부채, 우산 등의 생활 용품으로도 이용되었다. 실용성에 비중을 둔 한지 공예품은 다른 재료로 만든 기물에 비해 제조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전란으로 소멸되기도 하였고 각종 의식에 사용되었던 기물은 의식을 치룬 뒤 없애 버리는 풍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한지와 한지 공예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전통보전 의식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작품이 제작되고 있다.

한지 공예는 제작 기법에 따라 종이 노끈을 엮어 만드는 지승 공예, 종이를 두껍게 여러 겹 덧붙여서 그릇이나 가구의 골격을 이루는 지호 공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종이를 오려서 무늬를 만들고 기물에 장식하는 지화 공예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배접(종이를 여러 장 붙인 것)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 여러 가지 무늬를 오려 붙이는 전지 공예는 한지 공예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본 조사의 대상 지역은 강원도이다. 한지 공예의 재료가 되는 한지를 조사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지 공예를 조사하기 위해 전통한지 생산지인 원주의 한지 공예가인 김원자(62세)를 기본 제보자로 하여 한지 공예의 재료, 제작도구, 제작과정, 한지 공예품의 종류 등 한지 공예 전반의 내용을 넓고 깊게 조사하고자 한다.

개별주제는 ‘한지 공예’로 정하였다. ‘한지 공예’의 범주, 구성, 한지 공예의 종류, 한지 공예의 재료, 도구, 제작과정, 완성품을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원주와 춘천 분으로 두 분 모두 한지 공예를 15년 이상 하신 분이다. 춘천 제보자는 한지 공예 중에서도 전지 공예의

제보자이고, 원주 제보자는 전지 공예를 주로 하고, 지호 공예, 지승 공예 제보자이다. 가평의 한지장인 장용훈 씨의 아들 장성우 씨는 한지 공예 중에서 지승 공예 제보자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한지 공예	김원자	여	62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한지 공예	이부옥	여	58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한지 공예	장성우	남	43	강원도 가평군 상천리 장지방	



[김 원 자 제보자(62)]



[이 부 옥 제보자(58)]

2.2. 조사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 조사 기간 : 2009년 5월 26일 ~ 2009년 11월 26일
- 조사 세부 추진 계획표

연번	세 부 추 진 계 획(월,일)	비고
1	문헌조사 (5.26 ~ 6.15)	
2	이부옥 제보자 예비조사(8.15)	
3	이부옥 제보자 1차 구술생애(9.7)	
4	이부옥 제보자 2차 어휘조사(9.14)	
5	이부옥 제보자 3차 어휘조사(9.25)	
6	이부옥 제보자 4차 어휘조사(9.30)	
7	장성우 제보자 1차 어휘조사(10.2)	
8	김원자 제보자 구술생애 및 어휘조사(10.9)	
9	장성우 제보자 감물들이기 사진(10.24)	
10	조사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10.15 ~ 11.26)	

2.3. 조사 장소

- 김 원 자 제보자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이 부 옥 제보자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지하상가 한지공방 지천년예가
- 장 성 우 제보자 : 경기도 가평군 상천리 장지방



[장 성 우 제보자 작업실 1]



[장 성 우 제보자 작업실 2]

2.4. 조사 내용

	조사 내용
한지 공예의 정의	한지 공예란? 전지 공예, 지승 공예, 지호 공예, 지화 공예
전지 공예	구성, 재료, 도구, 제작과정, 전지 공예품
지승 공예	구성, 재료, 도구, 제작과정, 지승 공예품
지호 공예	구성, 재료, 도구, 제작과정, 지승 공예품

2.5. 조사 결과물

조사 결과는 어휘, 사진, 음성, 동영상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어휘는 기존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할 것이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한 수집할 것이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일을 하게 된 동기)는 동영상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물 구축은 조사 결과 자체로서 민족생활어를 기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책으로 출판하여 사라져가는 우리민족의 생활 문화 및 정신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민족생활어 사전(음성, 사진 자료를 담은 전자사전 형태)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어휘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한지 공예		210	136	2/5 ²⁾	210	279	2/3

2) 음성파일 7개의 총 전사 시간은 5시간 36분임.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생애 구술

1. 김원자 제보자



[김 원 자 제보자(62)]

1.1. 출생지

@. 선생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선생님 여기 이 지역이 원주 무슨 동인가요?

#. 명륜2동이야요.

@.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 응, 옛날에는 여기가 산이었어요. 야트막한 산이었었는데, 그때는 인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 대명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기 문막 나가는 쪽으로 이사갔지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살았었어요. 그랬다가 글루 이사 가고 여기가 택지가 된 거예요.

@. 선생님은 원주가 고향이세요?

#. 예.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서 세 살 먹을 때 원주로 이사 오셨데요, 아버지가.

@. (웃음) 지금껏?

#. 그래서 여지까지 원주 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는 애 아빠 따라서 애 아빠 직장 따라서 여기저기 다녔고.

@. 선생님, 그 선생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일중면? 그 쪽에가 고향이세요, 아버지, 엄마는. 한 고향 사람 들이고. 그랬다가 인제 제가 어릴 때 세 살 때 원주로 이사 나오셨어요.

@.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신 거네요.

#. 네.

@. 선생님은 올 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육십두 살. 너무 많죠?

@. 너무, 아니 근데 뭐 쉰 초반이신 것 같애 갖고.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 김원자입니다.

@. 김원자 선생님. 선생님은 그 형제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 오 남매 중에 제가 맏이예요. 고 바로 밑에가 남동생, 고 밑으로 딸, 딸, 딸.

@. 딸, 딸, 딸?

#. 일남 사녀 중에 맏이.

@. 부모님이 맏딸이고 이래서 기대도 많이 하셨겠어요?

#.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가 '으뜸 원' 자를 써서 원자라고 지어주셨어요.

1.2. 어린시절

@. 선생님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 어린 시절요? 어린 시절, 저는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것 같으구. 아파서도 또 초등학교 이 학년서부터는 육상 선수로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삼학년까지 육상을 했구요. 농구, 육상을 주로 했구요.

@. 그러면 요즘도 운동 많이 하시겠네요?

#. 걷는 거, 뛰는 거 아직도 좋아하지요. (웃음)

@.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떤 거를 잘 하셨어요, 운동 말고?

#. 노래. 합창반에서도 합창 선생님하고 육상부 선생님하고 싸웠으니까. 애 서로 데려갈라고. (웃음) 그리고 이 손으로 만지는 거 뭐 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린다고 칭찬 받았고, 저희 어릴 때는, 요새는 돈만 주면 사잖아요, 우리는 인형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쁘게 만들어가주 왔으면 그거 본따서 그려가주구, 오려가주구, 옷도 만들어 오려서 입혀서 그렇게 놀면서 컸죠 뭐.

@. 그럼 선생님은 한지 공예 하실 만 한 그런 자질이 어려서부터 보이셨네요?

#. 네. 손으로 뭐 쫄딱 쫄딱 하는 거는 좋아했던 거 같아요.

@. 선생님 어릴 적에 선생님은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 (웃음) 어릴 때는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때는 또 아나운서로 변했었죠? 그래서 케이비에스 시험도 한 번 본 적 있어요. (웃음) 그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쯤 돼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가주구 그 답에 제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또 수녀님이 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삼 졸업하고 수녀원에를 갔다가 아버지뻘에 한 일 년 만에 그냥 나오고. (웃음)

@. 그 결혼, 수녀원 갔다 나오셔가지고?

#. 아니요. 갔다 나와 가지고 친구가 그 저기 지금, 그때는 선생님이 많이 모자랐던 시대여 갖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강사 모집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걸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봤더니, 그냥 됐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정선군

에서 근무도 했고, 지금은 다 원주시로 통합됐지만 신림면에. 그 전엔 원선군이라 그랬지. 그 쪽에 신림면에도 근무했었고.

1.3. 결혼생활

@. 선생님 그러면 결혼하신 거는 언제?

#. 예. 학교에 있을 때 결혼하면서 제가 사표를 냈어요. 아범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표 내고 바로 또 피아노를 시작했죠. 피아노는 이제 처녀 때부터 제가 가리켰던 거고 배웠던 거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두고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자꾸 옆에서들 가리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 가족 애들 가리키다 보니까 그게 시작이 돼 갖고 피아노 교습소 오랫동안 했어요.

@. 선생님 가만히 보면 예술적인 기질이 많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음악도 잘 하시고, 만들기도 잘 하시고. 그 결혼을 그러면은 결혼하시고,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 같은 학교에서.

@. 아, 학교 선생님이셨던?

#. 네. 같은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었죠.

@. 그러면 뭐, 어떤 분이세요?

#. (웃음) 글썄. 그냥 뭐 옛날 남자들 다 그렇죠 뭐. 놀기 좋아하고 와이프한테 멋대거리 없고 남한테 친절하고. 지금은 갔지만.

@. 아, 돌아가셨어요?

#. 네.

@. 슬하에 자녀분은 어떻게?

#. 아들 하나.

@. 하나세요?

#. 네.

@. 지금 그러면 몇 살이세요?

#. 음, 서른 셋.

@. 지금 뭐 그러면 따로 장가?

#. 아뇨. 요 방에 자요.

@. 지금요? (웃음)

#. 밤에 뭐 하는 일이 있어서, 낮엔 자고 밤엔 나가 일 하고 그래요. (웃음)

@. 그럼 아드님이 막 선생님 이렇게 뭐 작품 만드시고 그런 거를 평상시에 어떻게, 뭐라고?

#. 뭐 엄마 좋아하는 거 하나씩 뭐라곤 안 하는데. 인제 화요일 날 여기 지티비, 아니 엠비씨 촬영오느라고 좀 치웠지, 아니면은 카페트도 없어요, 여기. 그냥 공방이죠, 뭐. 공방. 널어놓고, 막 마루 한 가득 공방이죠, 뭐. 그래도 별 잔소리 안 해요. (웃음)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그냥 그런가부다 하지 뭐.

@. 선생님은 이제 뭐 아드님 장가보내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 장가보다도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가게 해 줘야지. (웃음)

@. 선생님은 뭐 아드님이 결혼해갖고 살림나시고 이러면은 어떤 작품을 하나 선물을 해 주시겠어요?

#. 인제 여기는 애가 쓰게 하고 제가 공방을 얻어서 나가야지요. 살림할 수 있고, 그런 데를. 이제 지금 이쪽 방은 창고 방이에요. 안방까지 침범해갖고 침대 하나 달랑 있어요. (웃음) 너무 많아가지고.

1.4. 한지 공예

@.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한지 공예를?

#. 제가 한지 공예 시작한 거는 구십팔 년도에 집안에 뭘 일이 있어갖고, 이제 서울을 대법원에 갔다가 집에 오기 싫어가지고 인사동 구경이나 한다고 이제 인사동에 갔다가 한지 공예품을 봤어요. 근데 참 이쁘드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번 날 엠비씨 기사가 그말 해지 말라 그랬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좀 비싸드라고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 그래

서 이런 거를 누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거 배울 수도 있냐니까, 아 있다 이래요. 그래 어디 가면 배우냐니까, 어디어디 갈켜줘요. 그래서 거기를, 그때는 제가 피아노 교습소 할 때니까 자주자주 못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로 되어 있는 건데, 또 그때는 입시생도 데리고 있으니까, 갠 아주 대학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자주자주 못 가고. 어쩔 땐 이 주에 한 번 어떤 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천삼 년 초 되면서 고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천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올해 칠 년째가 아주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칠년 동안. 시작은 구십팔년돈데.

@.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한테?

#. 저는 한지 공예는 이제 거기 서울에서는 심화숙 쪽 선생님한테 배운 선생님인데, 맨 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강사가. 갈 때마다 틀린 적이 많았어요. 누구 하나 딱 지정해서 맡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원주 와서는 시립 박물관에, 원주 시립박물관에 정순기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실력이 또 쌓아지니까 진도가 나가니까 여기 박물관은 기초반밖에 안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서울 상기호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오 년째 배웠죠.

@. 상기옥?

#. 상자. 기자. 호자. 네.

@. 저도 존함을 얼핏 들었는데 상기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 대통령 상까지 타셨어요. 지부를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남자분이신데 부인이신 사모님도 한지 공예를 하시구요. 근데 이제 많이 편찮으실 때는 사모님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현재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지요. 한지 공예 쪽에서는. 전주에 김애자 선생님이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상기호 선생님 제자예요. 제가 침에 전주로 김애미 선생님한테로 갈까 서울로 갈까 하다가 김애미 선생님이 상기호 선생님 제자라 그래서 그러면 상기호 선생님한테로 가지, 이래고 갔던 거예요. 또 전주보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 서울이.

@. 상기호 선생님이 좀 엄격하시나요?

#. 그럼요. 이런 문양 맘에 안 들면 또 해오라 그리고 또 해오라 그리고 그러시죠.

@. 상기호 선생님한테 배우시면서 선생님은 어떤 것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배우셨나요?

#. 철저하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뭐 이걸 또 해.' 속으론 그러지요. 그런데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니까 하긴 해요. 근데 속으로는 '왜 이걸 또 해라 그래. 왜 이게 맘에 안 들지요?' 그러지만 그 명령을 따르고 보면, 하라는 대로 하고 보면, '아, 이래서 또 해라고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요. (웃음) 틀리니까. 또 해보면은 먼저 꺼하고 대조를 해 보면 더 잘했잖아요. 그 동안에 연습도 또 했고, 그래서 이걸 또 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엄격하세요. 수강비는 다른 데보다 조금 높다고는 해요.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철학. 그거는 우리가 배우겠더라고요. (웃음) 수강료가 좀 많다고 그래서 배우다가 끝까지 안 배우는 사람 많아요. 수료증 못 받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끝까지 달래는 다 주고. (웃음) 이런 건 빼주세요. (웃음)

@. 선생님 그 이제 한지 공예가 몇 가지로 나뉘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 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나한테 맞는 거 같다.' 그런 영역이 있으신가요?

#. 지금 맞는 거는 거의 다 맞아요. 제가 하는 거는 오색 공예도 참 재밌어요. 문양 파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그것도 재밌고 지호 공예도 너무너무 재밌지요. 지호 공예는 오색 공예를 먼저 했는데 지호 공예는 어느 날 문양을 파다보니까 나이 더 먹고 눈이 나빠, 그 전엔 안경 안 썼는데 안경 쓰게 되지요, 돋보기도 인젠 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리다보면 이거 못하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한지가 지고 헬 게 없나 하고 보니 지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호를 배운 거고, 지승은 이제 우리 아는 후배가 하니까는 같이 옆에서 조금 배웠고. 지승은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할 줄 안다는 것 뿐이고.

@. 선생님,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한지 공예가 선생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늦게나마, 늦게 시작했잖아요.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성격이 또 제가 뭐 하나 하면 외곶수로 파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남보다 대상도 먼저 탔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 대통령상 받으신 거죠?

#. 아니요. 대한민국 한지대전. 작년에 대상. 대통령상이 아니고 문광부상. 대한민국 한지대전 대상을 문광부에서 주는 거드라고. 그냥 재밌게 해요.

@. 선생님의 삶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인가요?

#. 네. 늦게나마 제 적성에 맞는 걸.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교습소를 하다가요, 인제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그래도 이제 내내 했던 거니까 피아노를 헬라고 이 삼층까지 피아노 네 대를 다 들고 올라 왔어요. 원래는 요 이층 이백이호에서 할라고, 제가 거긴 이십 평을 짤라서 나뒀었는데 고걸 누가 자꾸 세를 달라고 해서 주고 보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고 다 끌고 올라왔는데 그랜드는 팔고. 이게 한지 공예가 재밌어갖고 다음 달에 시작해야지 해야지, 교육청에 신고는 해 놓고 못 해줬더라고요. 다음 달엔 해야지 또 다음 달엔 해야지, 근데 하나 끝나고 나면 재밌으니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래다가 에이, 하고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그래도 하나는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벨로체를 남겼는데 저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웃음)

@. 선생님, 이제 선생님 살아오신 거 짝 들어봤는데, 선생님 이제 공예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계획 있으시면?

#. 지금 계획은요, 제가 이제 이 한지 공예를 해서 한지개발원에 막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니까 시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빠 친구들이 인제 도서벽지 쪽으로 많이 계시니까, 정년퇴직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 다니면서 한지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한지 공예품도 구경 못 한 애들도 있잖아요. 원주에서만 한지, 한지하지, 저런 도서벽지 쪽에서는 한지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다니면서 한지를 알리고 싶고, 한지 공예품을 알리고 싶고, 개네들이 체험할 수 있게 다니면서 해 주고 싶은 계획은 있어요. (웃음)

1.4.1. 지호 공예의 재료

@. 지호 공예에는 어떤 어떤 재료가?

#. 각종 재료가 인제 저희들이 쓰는 거는 한지가 주재료구요. 그 다음 한지 중에서도 한지를 만드는 그 재료인 닥나무에서 나오는 백피라고 있어요. 백피, 흑피, 그 다음 인제 닥죽이라고 그래서 한지죽을 닥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답에는 인제 황토도 쓰고.

@. 아. 황토도 같이 쓰나요?

#. 예. 한지하고 섞어서 써요. 그 답에 갯벌도 쓰고요. 그 다음 치자.

@. 치자는 물 낼 때, 물 들일 때?

#. 예. 물들일 때 쓰구, 숯가루도 쓰구요. 그 답에 삼찌꺼기라고 그래가지구 왜 삼베

만드는 삼있잖아요. 그거 찌꺼기, 그것도 쓰구요.

@. 아니 별거별거 다 들어가네요?

#. 사포한 다음에 콩가루로 콩물을 입혀요. 날콩 갖고 그걸 콩땀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구 장판에 콩땀하듯이 우리 작품에도 콩땀을 해요. 날콩가루도 쓰구요. 그 다음 마감재로는 느릅나무 뿌리를 삶아서 벌레 먹지 말라고. 한지가 오래 두면 벌레 먹거든요. 그래서 느릅나무 뿌리도 필요하구요.

@. 느릅나무 뿌리가 마감재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 삶아서 써요. 그 다음 백반도 쓰구, 그 다음 양젓물도 쓰구요. 그 다음 뽕은(볶은) 소금, 군 소금 그것도 쓰구요. 황촉풀이라구 해서 닥풀이에요, 그것도 쓰구요. 또 우뭇가사리풀.

@. 한지를 만들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할 때도 써요?

#. 이거를 할 때도 쓰구요. 우뭇가사리 가지구 그걸 인제 끓이면 찌뚱찌뚱해요. 그것도 인제 점성을 좋아지게 하느라고 우뭇가사리풀도 쓰구요. 찹쌀풀, 밀가루풀도 쓰구요. 그 다음 유황도 끓여서 써요. 저기 마감재로다. 작품마다 달라요. 근데 이런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삼베천.

@. 삼베천은 뭐할 때 써요?

#. 고거는 인제 작품을 튼튼하게 하느라고 틀잡은 다음에 삼베천으로 한 번 싸요. 이렇게 붙여 조각조각내서.

@. 이렇게 붙여요?

#. 예. 그 답에는 송진도 쓰고.

@. 송진은 어디다 쓰나요?

#. 송진도 인제 벌레 먹지 말라고 써요. 옷나무 껍질도 쓰구요. 그리고 각종 천연 염색도 우리가 쓰구요. 콩기름, 들기름, 동백기름, 또 피마자 기름, 또 황칠. 황칠은 굉장히 비싸서 잘 못 써요. 황칠이라고 황색 나는 칠이 있는데, 옷칠보다도 값이 비싸요.

@. 재료는 뭔지 모르시구요?

#. 있어요. 황칠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 재료가 뭔지는 난 아직 몰라요. 옷칠보다 비싸요. 어쨌든지. 옷칠, 붉은 계통도 있구, 밤색나는 계통도 있구.

1.4.2. 지호 공예의 제작과정

@. 선생님 그 지호 공예 순서를?

#. 처음에 인제 종이죽을 만들지요.

@. 종이죽이라고도 하고?

#. 한지죽.

@. 한지죽이라고도, 아까 인제 닥죽이라고?

#. 그게 인제 한지죽이에요. 한지죽을 인제 벌레 먹지 말라고 여러 가지를 넣고.

@. 어떤 거 넣나요?

#. 그거를 말을 해면은 안 되지. 그거는 우리 선생님한테 전수받은거니까 내가 고대로 넣는다고 그러면은 고대로 넣고 누가 종이 가지고 쓰면은 안 되지요. 그거는 그냥 한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지. 벌레 먹지 말라고 여러 가질 뉘요. 개가 그냥 고대로 한지죽을 써가지구 옷칠한지대전에 옷칠해서 내가지구 상탤잖아요. 그냥 한지죽을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구. 한지죽을 만들 때 한 번 찌요, 찜통에다가 찌요. 찌가지구 한 김 나간 다음 절구에다가 찌요. 찌어요. 찌는 거 절구질한다고 그러죠. 찌어서, 찌는 거는 섞이게도 하지만 점성을 높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에 찻쌀풀 있었잖아요, 그거 만든 거를 거기다 섞어서 절구질을 해요.

#. 그래서 한지죽을 만들어가지구 형태를 뽀을 주로 도자기 형태로 한다 그러면 도자기에다 인제 붙여서 뽀을 만들어내요. 뽀을 만들어 내 가지구. 이렇게 만들어낸 데다가 만들어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 작품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베로다가, 베조각(조각)이죠, 베조각으로 빼곡하게 빈틈 없이 다 바릅니다. 전체를.

#. 그 다음 인제 한지죽을 만든 거를 조금씩 뜯어서 엄지로다 꺾꺾 눌러가지구 여기다

가 덧붙여가지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이런 데서 따낼려면 못나오겠지요? 그니깐 반을 갈라요. 뽀 만들 때 반 갈라서 애를 끄내고 합쳐요. 합칠 때는 인제 요기 자세히 보면 요렇게 칼로 잘라낸 자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사포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색깔을 넣어가지구 만드는 거예요.

#. 한 팔십프로 정도 말랐을 때 반 갈라서 안에를 빼 내요. 빼내고 합쳐요. 합쳐서 고무줄로 붙들어 매놔서 애가 붙게 좀 놔둬, 하루정도 놔뒀다가. 그렇지요. 풀칠을 해줘요. 단면에다, 짤른 단면에다가. 그래서 고무줄로 붙들어 매놓으면 애가 잘 붙어요. 또 한지죽이 잘 붙으라고. 그리고 베를 안 하면 틀어져요. 작품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틀어지지 말라고, 작품이 튼튼해지라고 하는 거지요.

@. 요거 붙이고 나서도 한참 말리나요?

#. 베 붙이고는 바로 한지죽 발라도 상관없어요. 말리지 않아도 돼요.

@. 붙이고 나면 여기다 계속 사포질을 하는거예요?

#. 사포도 하고, 이렇게 쓱쓱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데는 더 보충도 하고. 보충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보충한다고, 메꾸다고 하지요. 또. 사포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데가 있으면 보충해 주고, 메꿔주고. 그래가지구 반질반질하게 되면은 색이 들어가는거죠. 그 다음에는.

#. 색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포하고 콩땀을 해요. 또. 주머니에다가 날콩가루를 넣어가지구 날콩가루 물에 개서, 지룩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콩물을 입히는 거예요.

@. 베에다가요?

#. 아니요 그냥 저기 소창주머니. 그러면 여기가 노랗게 노르스름하게 변해요. 애가. 날콩가루 노란콩. 메주콩.

@. 노랗게 그래서 이게 한 건가요?

#. 아니요, 한지죽이 이런 색이 나요. 그 다음에는 말려요. 사포하고 나면 또 콩땀. 콩땀이 끝나면은 사포질 또 안하고 콩땀 다음에 색이 들어가요.

@. 콩땀하고 나면 색깔이 더 잘?

#. 지금보다는 조금 놀놀해지요. 색이. 그리고 반질반질해져요.

@. 놀놀해진다는 게 무슨?

#. 색이 조금 더 노래진다구. 한지색다 한지죽색보다. 까만색, 찌꾸색, 노란색.

@. 찌꾸색은 뭐냐요?

#. 요런 밤색 나는 거. 고런 색을 인제 차례대로 바르면, 바르고 말른 다음에 빼짝 마른 다음에 사포질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보여요. 제일 처음 인제 노랑을 칠하고, 까만색 칠하고, 찌꾸색 칠하고, 고 위에다 밤색 한 번 더 칠하고. 그래서 빼짝 말려요. 바삭 마른 다음에 사포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와요.

@. 그러니까 이게 들 갈리고 더 갈리고 하는 거에 따라?

#. 우리가 아마 꼭꼭 눌러서 했어두 또 보충을 하고 메꿨어도 들어가고 나간 데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색이 나는 거 같아. 우리 지호 공예할 때 색깔내는 방법이 죠 뭐.

@. 이 방법 말고 다른 거는요?

#. 요 방법 말고 다른 거는요. 지호 공예도 인제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색이 나는 기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호두문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 호두문양이구요. 그 다음 이거는 닥나무, 닥나무를 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먹었으니깐 누굴누굴하잖아요. 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기법이에요. 줄 빠짝빠짝 세우기가 똑바로 세우기가. 이제 요런 것도 있구요. 저런 데다가 저걸 인제 꼭꼭 눌러서 반질반질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이면서 호두문양처럼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걸 줄 세우는 거구 이거는 인제 이런 방법인데, 색깔이 여러 개가 안 들어가게 하면서 인제 우리 지호 공예할 때 이렇게 파내는 거가 있어요.

#. 이거는 제가 갯벌, 갯벌하고 한지하고 한지 죽을 썬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묵 직해요. 갯벌이 들어가가지고. 갯. 벌 흙이 들어가서.

@. 뭐가 다른가요?

#. 저희가 이제 아까 재료가 갯벌도 들어가고 황토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황토 들어간 거 제 작품은 지금 광주 가 있는데. 한지루만 하면은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주지만 갯벌이 들어가면은 한지죽이 차져요. 차져서 모양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갯벌을 느코(넣고), 황토는 또 황토 색깔이 너무 이뻐요. 한지하고 섞이면. 그래서 이제 황토도 쓰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이 이제 이렇게 갯벌을 섞어서 한지하고 섞어서 썼대요. 우리 선생님 말씀이. 황토도 섞어서. 한지, 그 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없었잖아요. 그릇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한지도 귀하고, 이러니까 이런 갯벌, 황토 이런걸 섞어서 한지하고 섞어서 죽을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썼대요. 옛날부터.

@. 그래갖고 말하자면 모양도 찰흙 만들듯이 그렇게 하시고?

#. 근데 이게 선생님한테 지적 듣기로 갯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살짝살짝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로 제가 뜯어붙여 놔어요. 인제. 덧붙일라고.

1.4.3. 지호 공예의 제작도구

@. 도구중예요?

#. 조각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용하는데 조금 굵어냈어요. 조금 굵어내는 거예요. 그건 조각도라고 우리도 그래요. 그거가지고 굵어내면 이렇게 줄이 가요. 요거는 제가 여기가 허전하잖아요. 해놓면 그리고 해놓고 보면 여기가 안 이쁘게 돼요, 항상. 그래서 지승으로 파가지구 한 줄 돌린 거예요. 지승으로 아래위로. 이거 두 개는 옷칠.

1.4.4. 지호 공예품

@. 지호 공예로 주로 어떤 걸 만드시나요?

#. 탈 또 이런 오리, 뚝꺼비(두꺼비). 이런 함지박 쪼그만 함지박, 지금 저 큰 함지박, 세수대야는 해 놔구. 저런 것도 또 있는데 전시회 나가 있어요. 오리도 집에 있으면 좋다잖아요. 그래 두 개 만들어 놔고(놔고), 인제 또 하는 거구. 뚝꺼비도 다산다복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뚝꺼비도 한 거구.

@. 선생님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 요거는 지호로 한 함지박인데, 작은 함지박인데, 모양이 이렇게 뚱그랑잖아요. 근데

인제 여기를 각지게만 하면은 멋도 없고 튼튼해지가 얇으니까 인제 요기를 삼베를 올려서 돌아가면서 튼튼하게 한 거구. 튼튼하게 하면서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하구 매치가 돼서 올리고. 떼내요. 처음에는 떼내면은 이거를 보면 얇잖아요. 많이 보충하면서 여러번 붙인 거예요. 이 두께가 그대로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 이거는 마감을 뭘로 하신거예요?

#. 이거는 지금 옷칠 할려다가 저거 했어요. 우리 보통 쓰는 마감재. 스테인물감. 그거 쓴 거예요. 애는 아직 마감이 안 돼서 뿌예요.

#. 요런 건 화병. 화병이라고 그래요. 저건 옷칠은 물 돼요. 이거는 안에 옷칠을 안했기 때문에 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건 옷칠이기 때문에 물 넣어도 자신있어요.

@. 저런 두꺼비같은 경우에는 본을 뭘로 하신 거예요?

#. 처음에는 저게 다리 따로 배 따로, 다리 따로 모양을 그려가지구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가지구 그래서 대충 틀을 잡아 가지구 보충하면서 사포를 하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애는 작은 거는 틀이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해요. 배 따로 머리 여기 따로, 앞발 따로 뒷발 따로. 따로따로 본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구 전체적으로 한 번 싹 발라가지구 속에는 따로따로 붙였지만.

@. 몇 번을 붙인 거예요?

#. 아유 많이 하지요. 저건 굉장이 오래 걸린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출품을 못했잖아요. 왜 인제 보충을 해야되냐 하면은 애네들이 말르면서 썩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충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말리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데가 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애네들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충작업을 해야지 돼요. 이것도 지호예요. 이 틀을 지호로 잡은 거예요. 종이죽으로. 뼈대는 전선이 들어가 있구, 철사가 들어가 있구, 하드보드지가 들어가 있구, 그거를 틀을 그런 거로 잡아사 종이죽을 붙이는 거예요. 만져보세요. 크게 안 무거워요. 종이죽이래서. 요기 초가등에 애도 종이죽이에요. 애가.

@. 아 이 기둥이요? 애는요?

#. 그거는 인제 처음에는 신문지 푼푼 말아가지구 잡지요. 개는. 화병, 향아리, 동물, 탈. 탈도 저기 있는데 탈도 재미는 있는데. 함지박도 여러 갠데 지금 다 나가 있어요. 그럼

요. 친구들 오면 이거는 많이 써요. 튀밥, 팽튀기 사오잖아요. 일로 하나.

#. 탈, 탈을 보여드려요?

@. 이걸 좀 특이하네요?

#. 고거는 인제 오색한지 하다보니까 색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걸로 죽을 써 가지고 색을 한 번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보고 싶어서. 예. 닥지로 한 거예요.

@. 그 재료를 가지고 응용을 해가시면서 하시네요.

#. 각시탈, 부네탈 이거는 하는 중이에요. 그거는. 하회탈. 제일 많이 만드는 게 하회탈, 그 다음에 양반탈. 부네, 각시탈, 부네탈. 이거는 미공개로 해야 돼요. 노승탈, 이매탈, 양주별산대탈 이게 있는데 출품해 볼려고 하는 거구, 지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이런 종류는 많이 안 해요. 양주별산대탈. 이게 노승이에요. 양주별산대탈이라고 그래요. 뽀을 보고 뽀을 제가 만들면서 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인제 제가 보고서는 틀을 인제 만들어요. 양반탈.

#. 근데 지호 공예에서 이미 저는 이런 거를 하지만 올해 금상 타신 마진식 선생님은 경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은 저한테 지호 배운 선생님인데, 등 만들어 가지고 특선하시구. 지호로 등도 해요. 그림도 그리지요.

@. 그림도 지화 공예라고 하나요?

#. 지화는 꽃이에요. 꽃 종이꽃. 그렇지요. 한지에다가 그림 그리면은 민화도 있구, 그 화자가 꽃 화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1.4.5. 지승 공예

#. 지승은 쪼끔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저거를 또 갖고 와야지 돼. 물스펀찌(스펀지). 스펀지에 물 묻인 거. 짬 날 때 해놨다가 또 작품도 해요.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묻히잖아요. 그런데 장지방 선생님은 물 안 묻히고 하시더라고. 요렇게 이센치 넓이의 한지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물을 살짝살짝살짝. 물을 살짝살짝살짝 인제 저기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구 그 귀통이를 귀통이에서부터 포로로 말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포로로 말아가지구 이렇게 요거를 파는 걸 보고 훌줄이라고 그

래요. 젤 기본인 거예요.

#.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지 안 풀려요. 이이게 흘줄 판다 그래요. 흘줄. 한 줄이라 그 애긴데. 끝에 조금 남겨놨다가 연결해서 써요. 이렇게 흘줄끼리 여기다가 이어요. 이어서 긴 줄이 필요하면 인제 쓰는 거구. 이렇게 해서 젓었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겹줄.

#. 이렇게 짜 가지구 문양을 누면서 그것도 이 지승도 이런 뿐에다 하는 거예요. 향아리에다 하면 향아리 모양이 되고 촛대 모양에다 하면 촛대 되고. 상 모양에다 하면 상 모양이 되고. 근데 장지방 선생님은 뿐 없이 그냥 하신다니깐요. 근데 이결(엄지) 젤 많이 쓰잖아요. 이거 팔 때 한참 짜면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짬 날 때마다 해 놔다가 짬 나면 만들어가지구.

#. 이것도 이제 흰걸로만 안 하고 양파 염색도 하고 커피 염색도 하고. 양파 껍질 삶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땐 또 쪽물도 입히구, 썩물도 입히구. 그래가지고 작품 만들죠.

@. 엮어서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거죠?

#. 엮죠. 이렇게. 작품할 때. 이걸 지금 해 놓 거예요. 이걸 이 색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저기 이거는 한지 이런 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굵은게 필요해서 저기 지갑 매달을 때 저기 이렇게 매달렸잖아요? 그거 할 때 제가 짜 가지고 쓴 거예요.

2. 이부옥 제보자



[이 부 옥 제보자(58)]

2.1. 출생지

@.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네.

@. 선생님 성함 좀?

#. 네, 저는 이부옥이에요.

@. 지금은 어디 사시나요?

#. 지금 거주하는 곳은 석사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 석사동 춘천?

#. 네.

@. 그리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제가 몇 살이지? 오십칠 세. 만으로요. 네.

@. 선생님, 오늘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 고향이 강원도 인제예요. 강원도 토백이쥬(토박이쥬).

@. 인제에서, 인제 어느 동?

#. 고기가 신남이라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태어나서, 거기서. 한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 인제 신남은 어떤 지역이었나요?

#. 제가 있을 때는 그때 뭐 전형적인 시골이었지만,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군인들이 많았던 것 같애. 군인들이 많아서 뭐 옛날에는 거기 학교에 학생 수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고, 또 수몰되어있고 이렇더라고요. 학교가.

@. 선생님, 고향에서 언제까지?

#. 제가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예예.

@. 그러면 어렸을 때 친구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계시나요?

#. 거진 없는 거 같애요. 예예. 저희가 그러고 나서 집안 형편상 안 좋아 가지고들 다 떠나고 이러다보니까. 자주 가 보지도 못하고 일 년에 뭐, 제가 인제 거기에 뭐 연고는 되지만 부모들이 거기에 안 계시니까 가게 되지를 않아요.

2.2. 부모님

@.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나요?

#.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 저희 아버지는 그 육이오 때 돌아가시고 제가 큰집에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 집 호적으로 있었쥬. 제가 인제 우리 부모가 저희 큰아버지, 큰엄마가 저희 부몬지 알고 살았어요.

@. 그 어머니는 어떤?

#.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딴 곳으로 출가를 보내셨는데, 어머니도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몰르고 살았죠, 이제. 큰엄마, 큰 아버지가 제 부몬 줄 알고 살았어요.

@. 아, 어렸을 때.

#. 예예.

@. 그럼 형제분들은?

#. 이제 사촌이 제가 인제 혼자뿐이 없어요.

@. 사촌?

#. 네, 이제 사촌분이 다 우리 언니, 오빠, 동생 이런 줄 알고 살았구요. 또 다행히도 또 고모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예. (웃음)

2.3. 어린시절

@. 어린 시절에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 저 어렸을 때, 너무 몸이 허약해서 제가 뭐 이제 금방 얼마 안 있다가 있으면 죽을 것처럼 할머니가 인제 저를 많이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많이 나요. 할머니가 저를 딴 사람보다도 유독이 더 많이 챙겨주셨던 것. 네. 아직 시간이 돼서, 안 돼서 에어컨도 안 들어오네.

@. 그 어리셨을 때, 어떤 꿈을 꾸셨어요?

#. 근데 뭐 글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약간 멍청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가 아파가지고 날 데꼬 할머니가 뭐 병원에 다니시고, 뭐 이랬던 생각만 좀 나요. 예.

@.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으시네요.

#. 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 할머니도 뭐 제가 또 커서 제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고, 예.

@. 할머니에 대한 일화나 뭐,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 우리 할머니. 제가 보면 우리 할머니가 음식솜씨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음식솜씨가 좋으셔서 그 옛날에 뭐 동네에 뭐 큰 일이 있고 이러면, 가서 이렇게 뭐 행사에 가서서 음식 만드는 거를 해 주시고 뭐 이랬던 거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옛날에 음식을 또 많이 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요.

@. 솜씨가 좋으셨구나.

#. 네 솜씨가 좋으셨어요. (웃음)

@. 선생님, 혹시 그 어렸을 때 친구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 기억나는 사람들은 있죠. 네.

@. 친구 분 중에 누구 한 명?

#. 음, 그 인남이라고 있었는데요.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이민을 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들은 이제 뭐 이력저력 있는데, 그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성장하면서 결혼생활 하고 나가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잊혀지고,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사람 또 잊혀지고, 이려고 사네요. (웃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그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활을, 시간을 좀 못 빼는 것 같아요. 예.

@. 주로 이제 뭐 만드시고.

#. 예예. 그러네요. 예.

@. 그 선생님, 이제 학교를 중학교 때까지는 인제에?

#. 네네.

@. 그럼 이제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나오셨어요?

#.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거기 살다가, 그 제가 그 아버지가 육이오 때 돌아가셔서 제가 유자녀 혜택을 받는 게 제가 학교 갈 때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수원에 그 원호원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는데 제가 거기서 그 과정을 다 못 밟고 생활전선으로 나왔어요. 네.

2.4. 결혼생활

@. 거기에서 결혼은 그럼 언제쯤?

#. 결혼을 제가 칠십, 칠십오 년? 칠십오 년도? 네. 칠십오 년도에 했나 봐요. 스물다섯, 여섯 살 때. 예예.

@.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 남편은 공무원이었고요. 저도 거기, 제가 그 수원에 있을 때, 진흥청 그 월예 시험장에 거기 시험 보조원으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뭐 월급도 별로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그 체신청에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온 게 가평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가평에서 또 저를 발령을 그 저기 현리라는 곳으로 내 주더라고요. 거기 우체국에. 저는 이제 거기 우체국에 있었고, 우리 애들 아버지는 거기 면사무소에 있었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웃음)

@. 남편 분은 어떤 분이세요?

#. 우리 남편 분은, 글썄 뭐. 그냥 평범한 그냥 공무원이었죠, 뭐. 그냥 좀 뭐 다정다감은 했었어요. 예. (웃음)

@. 다정다감하시고.

#. 예예. 성격은 좀 있었고. (웃음) 타고난 성격이라 어쩔 수 없고.

@. 자녀분은 어떻게 두셨어요?

#. 지금 아들이 서른 넷, 딸은 서른둘이에요. 네.

@. 그럼 지금 결혼은?

#. 다 못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뭐. (웃음)

@. 그 자제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 어떤 뭐, 어떠셨나요?

#. 그냥 뭐 건강이나 뭐나 그냥 평범하게 한 거 같아요. 공부도 뭐 그냥 평범하게 하고 뭐. 그냥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웃음) 특별히 속 썩이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런 것 같네요. 네.

@. 지금은 그냥 뭐 취업 준비 뭐 이런 거를?

#. 큰아들은 뭐 이제 공무원 시험 몇 번 준비하다가 안 돼서 지금 뭐 쪼그만, 형네 뭐 일 하는데 가서 도와주고 있고요, 서울. 또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네.

2.5. 한지 공예

@. 그 이 한지 공예를 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 글썄요. 제가 한지는 관심은, 워낙에 이런데 뭐 그 때는 평범하게 살다가 그 한지 공예는 한 이십년 전 정도에 서울에서 우연히. 이제 인사동 길을 걷다가 마음이 가서 그때 뭐 취미로 좀 했지, 뭐 직업을 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여기 공방에 오면서 한 칠 년 정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공방은. 예.

@. 공방이 춘천에 있나요?

#. 아니요, 서울에서 다녔어요.

@. 서울에서 다니셨어요?

#. 네. 예예. 제가 그때는 가평에서 살 때였어요. 예.

@. 공방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배우시면서 '아, 이건 내가 오랜 세월동안 이걸 계속 하겠구나.' 이런 감이 있으셨나요?

#.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때는 다방면으로 워낙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때 배울 때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취미로 좋아서 그냥 취미로 시작했고. 그때는 제가 그림도 배우러 다니고, 또 서울에 있을 때 꽃꽂이도 했던 게 있어서 꽃꽂이도 뭐 한 육 칠 년 정도 해서 그것도 이제 해 놓고, 그림도 했고 했는데요.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이러면서 그 전에는 가평에서 쪼그만 이불가게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랑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근데 과연 뭐를 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게 제가 맘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문적으로 그냥 이 길로 나가기로 했죠. (웃음)

@. 그 하시면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은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 그런 생각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안 했으면 뭐를 했을까.

남들은 퇴직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에 저는 이제 점점 할 일이 많대는 거. 예, 그런 거 때문에, 놀지 않고 할 수 있대는 거. 또, 계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안 타고 뭐 이게 뭐 낮이나 밤이나 계속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점점 애착이 가고 또 정도 가고, 또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이걸 배우러 오시는 분들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예.

@. 어떤 한지 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선생님이 갖고 계신 성향이 비슷하신가요?

#. 예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배우러 오는 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2.5.1. 한지 공예의 종류

@. 그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서, 한지 공예 하시면서 한지 공예가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인지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 한지 공예는 전지 공예, 지호 공예, 뭐 그 지승 공예 그렇게 나뉘질 수가 있겠죠?

@. 전지 공예는 어떤 건가요?

#. 전지 공예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전지 공예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골격을 만들어서 한지를 붙이고, 또 문양작업을 해서 붙이고 하는 게 이제.

@. 지승 공예는요?

#. 지승 공예는 그 특히 말하는 그 종이를 파서 만드는 게 이제 지승 공예구요. 예.

@. 지호 공예는?

#. 지호 공예는 이제 그 종이를 그 빨려서 풀을 매겨서(먹여서)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지호 공예. 지화 공예도 있네요. 그거는 인제 꽃을 만드는 거죠. 종이로요.

@. 선생님은 이 중에서 주로 어느 걸 많이 하세요?

#. 저거 이제 제가 전지 공예를 하지요.

@. 특별히 이 네 개 중에서 전지 공예 쪽이 더 맞으셨던 건가요?

#. 어, 글썸. 제가 처음에 딱 가서 뭐 이거를 네 가지를 놓고 내가 어떤 거를 할까 이런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그게 딱 맘에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때는 뭐 선택, 어떤 거를 할까 이런 것도 없었고,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길로 들어선 거 같아요. (웃음)

2.5.2. 작업에 걸리는 시간

@. 그 이렇게 한지 공예 하시면서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하시나요?

#. 몇 시간 정도요? 제가 거진 잠자는 시간, 아 저희 애들 아버지가 그 작년 재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거진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면 거진 여기 올 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 그냥 삶 자체시네요.

#. 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살다보니까.

@. 그러면 이 한지 공예 하는 시간에 선생님 주로 뭐 작업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 생각이요? 근데 생각 뭐. 하겠죠. 제가 안 할래도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

@. 주로 몰입하셔서 작품을 만드시는 데 집중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 작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셨을텐데, 그 작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소개하고 싶었던,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뿌듯했던. 그런?

#. 그러게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냥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던 게 좀 잘 한 것 같은데도, 또 해 놓고 보면 부족하고 다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엔 인제 딴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방법을 따르케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항상 뭐 만족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하고 나면은 조금 또 후회가 되고. 어, 그 다음 생각이 나니까. 고 다음 작품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보통 하나의 작품을 하게 되면, 선생님 기간이 한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 글썸, 기간은 뭐. 뭐 작품, 상품하고 작품하고 나눠졌을 때, 근데 저희가 이 한지가 워낙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뭐 꼭 작업하는 게 걸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 말리는 시간?

#. 말리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꼭 시간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저희가 뭐 공모전 준비할 때는 보통 육 개월 전부터 하고, 그냥 뭐 하나 만들었던 걸 또 하나 만들어야 될 때는 뭐 한두 달 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 어휴. 생각보다 기간이?

#. 왜냐하면 이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를 할래면은 이제 도안을 만들어놓으면 이제 이 기본 틀이 안 맞아요. 그럼 또 기본 틀을 해고, 또 기본틀하고 도안하고 만들어서 또 하다 이게 안 맞으면 또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생각하는 시간, 이게 답이 딱 나오면은 일단 딱 하면은 또 빨리 단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고런 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요. (웃음)

@. 그 만드신 게 주로 어떤 것들 많이 만드시나요?

#. 우리 거진 생활공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공예. 생활용품. 거진 그래요. 장식이라고. 글썸요, 어떻게 보면 장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계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생활공예라고 봐야 되겠죠? 예.

@. 그 이렇게 그런 것들 쪽 만드시면서 이 그 한지 공예가 선생님한테 주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의미라 그럴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 글썸요. 한지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뭐 많죠. 예. 제가 거기다 다 올인을 하고 있으면은 뭐 이미. 글썸요, 뭐 한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웃음) 많은 것을 줘요. 예. 경제적인, 돈도 좀 주고 또 제가 그거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뭐. 또 이거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준 거 같아요. (웃음)

2.5.3. 전지 공예 제작과정

@. 선생님, 하나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셔갖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

겠어요?

#. 네 저희가 그 간단하게 이런 데가 이런 게 있으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이런 틀이 이렇게 딱 되어있지 않았을 때는요, 그리고 또 이런 걸로 해지 않고 옛날에는 또 틀 자체에도 한지를 여러 번 겹쳐서 기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지를 붙이고 또 문양 조각해서 붙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간편하게 뭐 이런 장롱을 해도 이런 틀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틀이. 옛날에는 근데 나무를 짜서 그 나무 위에다 장롱 같은 데 그런데 이제 틀을 짜서 종이를 붙이고 이렇게도 했고. 또 그 워낙에 한지가 질기고 단단해가지고 화살을 쏘도 화살이 안 들어가서 방패막이도 될 수가 있고. 뭐 옛날에 뭐 요강도 만들고, 옷칠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기본 틀에다가 한지 붙이고, 또 그 문양을 조각해서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간단하게 마감재를 라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옷칠도 하고 콩땀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2.5.4. 옷칠과 콩땀

@. 옷칠이나 콩땀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옛날 옛날 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그 저희는 이제 옷칠 같은 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옷칠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작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 옷칠하시는 분한테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오고요. 또 콩땀 같은 것도 제가 시도는 한 번 해 봤는데 그게 그 짧은 시간에 할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옛날 옛날에 콩땀을, 그 콩 짜서 뭐 이렇게 짜 가지고 발라서 그 반복 작업을 해서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는 안 해보고요. 그 한지에 적합한 마감재가 나와요. 현대에 맞게. 그래서 그런 걸로 다 마감재 칠을 하고 있어요.

@. 그러면 옷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 어 그럼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원주 한지 문화축제에 공모전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일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서서히 거기서도 이 한지에다가 옷칠을 해서 이려고 출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 원래는 안 하다가?

#. 예예. 지금 거진 또 옛날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 장점이 있나요?

#. 장점. 장점. 글썄요. 장점은 많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곰팡이나 균 같은 게 침투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 장점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 옷칠이?

#. 예 옷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옷칠까지 할라면 이제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하면은 이빠요. 근데 이제 작품 당 이제 옷칠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백만 원씩 들어가서 그렇죠.

2.5.5. 한지

@.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그 기본적인 틀을 예전에는 한지를 붙여갖고 만드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처음, 인제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건가요?

#. 그러쥬. 그 옛날 유물에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런 자료도 그런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 그럼 이제 한지를 몇 겹으로 붙여서 이런, 이렇게 만든 요거를 뭐라 그러죠, 선생님?

#.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에 와서는 그 기계 작업을 해서 기본 틀을 만들거든요. 요거는 이제 백골이라고 말을 해요. 백골이라고.

@. 백골?

#. 예. 이제 기본틀이라고도 하고.

@. 그럼 백골을 한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거 초배지나 한지를 몇 번씩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기본틀 중간 작업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원하는 색지를 붙이는 거예요.

@. 원하는 색지를?

#. 네. 붙이고 거기에.

@. 색깔을 선택하는 거나 이런 데는 어떤?

#. 거진 수강.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놔도 또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색상이 여러 가지니까요.

@. 어떤 꼭 규칙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 규칙은 없어요. 거진 이제 색상은 거진 옛날에 모든 색에 기본은 이제 오방색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데 그 옛날 유물들 보면은 거진 뭐 오방색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색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자기 취향에 맞게.

@. 그러면은 이제 그거, 그거를 색지를 이제 원하는 색깔을 붙여서 만들고 그 다음 풀칠을 이제 몇 번씩 하게 되는 거죠?

#. 거진 저희는 물풀칠 작업을 다섯 번 정도 해요. 인제 한 번 칠하고, 다 완전히 말른 다음에 또 하고.

@. 그 종이 이 한지가 종류가 여러 개가 되는 건가요?

#. 그렇죠. 만드는 회사가 또 여러 군데서 장인들이 많이 만드시니까, 이제 뭐 종이가 뭐 요즘에는 뭐 아주 그냥 다담이까지 수작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 장흥열 씨, 원주, 아 장지방은 경기도로구나. 경기도.

@. 네. 장지방 전에 갔다 왔어요.

#. 거기에서는 마무리 작업까지 거진 다 수작업이고 그런 게 있죠.

@. 아, 장지방 종지도 쓰시는가 봐요.

#. 거기는, 거기서는 종이가, 거진 한지가 작품이에요. 장지방은. 그래서 우리가 공예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예, 쉽게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비싸니까. (웃음) 공예할 수 있는 장지방 꺼는 종이가 작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웃음)

@. 근데 인제 그 한 색이라 할지라도 그 색이 왜 어떤 부분은 다르고?

#. 아, 그건 인제 염색지예요.

#. 저희가 뭐 그 꽃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에, 수작업으로 만든 인제 염색지. 이런 종이요. 단색지 말구요. 그런 걸로.

@. 꽃, 꽃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로?

#. 염색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배접할 때.

@. 한 가지 색, 똑같은 색깔로 나오는 거는?

#. 색지라 그래요.

#. 우리가 평상시 쓸 수 있는 저런 한지요. 색한지라고 얘기하거든요.

@. 색한지라고도 하고, 색지라고도 하고?

#. 예.

@. 주로 그러면은 색지나 색한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어떤 문양 할 때 많이 쓰시는?

#. 기본, 기본틀, 기본 작품할 때에 본 바탕, 뭐 기본틀 그런데 많이 붙여서 써요.

#. 기본 작업할 때 거진 그걸로 쓰고 있어요.

@. 이거 두 번 붙이신다구요?

#. 두 번을 붙여야 되는데, 한 번만 하고 있어요, 등은. 근데 모든 함 뭐 이런 거는 다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초배를 붙이고, 색지를 붙이고. 그런데 인제 등은 인제 한 번만 하고 있어요.

@. 두 번째는 색지?

#. 색지로 하고 해는데. 풀을 그 많이 칠하는 건 안 좋은데요, 골고루 얇게, 골고루 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니까는 저희가 인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한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지마다 그 성질이 좀 있어요. 어떤 애는 좀 부드러운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강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예를 할 때는 인제 그 한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그 작품을 좀 잘 만들 수 있어요.

@. 한지를 두 장을 밀착시켜갖고 손으로 이렇게 막 주물러서 만드는 종이 있나요?

#. 아, 주물러서 만드는 거요? '구김지'라고. 한지, 그 구김지가 있어요.

@. '구김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이렇게 편편하질 않고요, 이렇게 주름을 줘서 말리기 때문에 주름이 막 가 있어요. 꾸깃꾸깃하게 가죠.

@. 한지가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혹시 색깔들을 일컫는 용어들은?

#. 색은 그 우리 한지는 옛날에 다 백색으로 써가지고 뭐 창호지나 뭐 이런 걸로만 썼는데. 인제 그 오면서 그 천연 연색들을 많이 했죠. 뭐 그 종이에다가 그 천연 염색을 해서 뭐 그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뭐, 홍아색이나 뭐. 모든 색을 낼 수 있는 오방색 같은 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인제 뭐 여러 가지 색을 내지요. 수많은 색을 내지요.

@. 오방색은 무슨 무슨 색을 오방색이라고?

#. 글썄 그것도 뭐 인제 뭐 황색은 뭐 땅을 표현하고 뭐 인제 이런 게 있는데. 뭐 황색, 적색, 흑색, 뭐 또 흰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2.5.6. 말리기와 풀칠

@. 그럼 말리는 기간도 꽤 길겠네요.

#. 그렇죠. 예. 이런 시간이 그래서 요즘에는 쉽게 뭐 빨리 쪼그만 소품들 할 때는 그냥 선풍기도 갖다가 말리고 뭐 그런, 그런 작업은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큰 것들은 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또 틀에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젖어있는데다가 또 하면은 이제 물이 흡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고런 거.

@. 풀을 붙일 때 첫 번째 붙이는 풀, 두 번째 붙이는 풀, 혹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있나요?

#.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 한 번 붙였니, 두 번 붙였니 뭐 이렇게?

#. 네. 예 그런 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종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지를 만지다 보면은 이 좀 한지가 다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안 찢어지는 종이는 풀

칠을 더 해서 녹록해 졌을 때 하는 거고, 또 어떤 종이는 잘 찢어지면 가볍게 찢어지면 가볍게 찢어서 할 수 있고 그래요.

@. 선생님 이제 거진 풀칠을 다섯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를 칠하는 거죠.

@. 아, 마감재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안 붙이나요?

#. 종이 붙이고 이제 모양까지. 그 모양까지 붙이고 난 다음에 풀칠을 하는 거예요. 색지를 붙이고 문양 붙이고 그 다음에 물풀칠 작업이 한 다섯 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감재 하고. 예.

@.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이제 색지를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양 작업을 해야 돼요. 문양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풀칠을 하는 거예요.

@. 그 위에다가요?

#. 예예. 전체적인. 여기 지금 물풀칠 작업까지 끝나고 마감재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풀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 풀칠을 하는 거라고.

#. 아, 아니요. 제가 건너 뛰었네요. 그러면은 기본 틀을 만들었으면요. 이런 이제 색지 종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나서 이 문양 작업을 해요. 그래서 문양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풀칠. 마지막 작업이나 마찬가지로예요. 마감재를 칠하기 위해서 물풀칠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물풀칠은 왜 하느냐하면은.

@. 선생님, 물풀은 뭐냐요?

#. 아, 물풀은요. 우리가 그 여기에 종이를 붙일 때 풀칠을 해서 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풀이 물이 좀 해서 농도가 얇게.

@. 열게?

#. 네. 해서 물풀칠 작업을 하는데. 물풀칠 작업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중

이도 이제 한지기 때문에 보풀도 나있고요, 이거 붙이면서 또 이제 풀이 이런 데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풀칠 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보풀 난 것도 잠재워주고, 또 여기 좀 풀이 많이 묻은 데 안 묻은 데도 희석해서 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물풀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풀칠 작업은 그 작업도 되지만 또 마감재를 할 때는 마감재가 이 안으로 흡수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팅 작업도 돼요. 속을 물풀칠 하면서, 그면서 이 작업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감재 칠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물풀칠 작업이 조금 중요해요. 그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애도 그게 잘 돼야 인제 마감재 칠도 잘 되고 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얼룩도 막 지고, 마감재 칠하면서 인제 그런 게 있어요.

@. 작품을 만들고 나갔고 벌레나 뭐 이런 것들, 습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로 마감을 하지요?

#. 예. 지금은 인제 뭐 그 화학약품으로 인제 쓰곤 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이제 옷칠을 한다든가, 뭐, 뭐 지칠을 한다든가.

@. 지칠이요?

#. 네, 뭐 흙, 뭐 황토에서 우려난 뭐 그런 거 갖고도 쓴다 그러긴 하더라도요. 저는 인제 그, 그런 건 안 써봤구요. 듣기는 인제 옷칠.

2.5.7. 문양

@. 그러면은 모양, 이걸 이런 거를 뭐라 그러나요?

#. 문양이요.

@. 문양. 이 문양은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요?

#. 이 문양은 그렇죠. 만드는 것도 말씀 드려야죠. 이제 이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종이가 좀 두꺼워야 되거든요. 인제 작가들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이 두께를 얼마나케 두껍게 하느냐는 각자 작가들의 마음에 달렸어요. 근데 요기에 좀 두껍게 할래면은, 한지를 그 두껍게 만드는 걸 이제 배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배접 할 수도 있고, 세 배접 할 수도 있고 네 배접 할 수도 있어요. 배접을 그래서 이제 기본 문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을 넣는 거예요. 요 색깔은 이제 뭐 염색지가 있거든요. 염색지를 갖다가 넣어서 문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체에다 붙여서.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물풀칠 하는 거예요.

@. 선생님, 여기 검은색도 있잖아요. 보면은 선이?

#. 예. 이게, 이 먼저 문양을 파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색을 붙인 거거든요.

@. 요 안에다가요?

#. 그렇죠. 이거는 검정색으로 배접을 한 거예요. 한지를.

@. 아. 그럼 공간이 지금 파여져 있는 거를?

#. 그거를 이제 다 조각을 한 거예요. 그림을 넣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작업을 안 들어가면은 생각하기가 힘드신데 저희도 이제 오면은 우선 종이 붙이는 거 이런 거서부터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종이는 꼭 문양 파는 것은 검정색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는 요 색으로 배접을 해서 이제 문양을 뚫고, 그렇거든요.

@. 이 문양은 여러 종류가 있나요?

#. 아니 문양은 이제 뭐.

@. 자기 원하는 대로?

#. 예, 거진. 저희가 여기서 수강했을 때는 제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가 문양은 다 도안은 제공을 해 드려요, 도안을. 도안은 이제 제가 만드른 것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참고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각자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각자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 기본적인 문양에는 어떤 게?

#. 거진 뭐, 문양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전통문양 뭐 내려오는 거를 다 쓸 수가 있고요. 뭐 떡판문양이나 다식판문양, 뭐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고. 문양은 뭐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작품에 원하는 곳에다가 그 필요한 것을 떠다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 문양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없나요? 무슨 문양이다. 무슨 문양이다.

#. 그럴 수, 그르치는 않구요. 그 도안이 용이면 용문양이다, 뭐 이렇게 붙여서 써요.

@. 그래갖고 물풀칠을 다섯 번 정도 하고 마감재를 칠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 그렇죠. 예.

@. 선생님, 이걸 문양을 팔 때는 그냥 '문양을 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 그렇죠. 그냥 이게 우리가 인제 문양을 이제 뭐 전문용어를 쓰면은 '조각을 한다' 그 리구 그러거든요.

@. 아, 조각을 한다.

#.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쉬운 말로 그냥 '문양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혹시 그럼 칼질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는 없나요? 뭐 이렇게 뒷끝을 좀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 그 뒷끝을 올려준, 네, 깊숙히 파, '깊숙히 들어가달라'고 얘기는 해요.

@. 깊숙히 들어가달라?

#. 그러믄 인제 여기가 이어져서 잘 딱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나 끝날 때는 막 깊숙히 끝까지 들어가달라고 얘기를 하죠.

#. 시간이 이제 옛날에는 인제 틀 만들고 하는 데다가 많은 시간을 썼는데, 최근에 와서 인제 그 틀 만드는 거는 인제 그 작업을 그 기계로 좀 해오는, 해올 수 있구요.

@. 선생님, 그 탈색공예라고 한 거는, 그거는 그 이 붙이기 전에 그러면 약품 처리를 해갖고 하는 건가요?

#. 그니깐 요고 붙이기 전에 여길 다 하면 돼요.

@. 꽃창살 문양에 이게 색깔이 왜 요렇게 조금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요거는 뭐 어떻게 종이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그 종이의 각자의 색, 그, 그 단청 칠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이렇게 해잖 아요. 근데 이렇게 종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 틀린 색을 넣었어요.

@. 선생님, 이거 굉장히 두꺼운데요, 이게 한 몇 겹?

#. 그게 스물 일곱 겹 정도 돼요. 그 단청 문양에서, 그 사찰이나 그런 데서 그런 문양들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구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것두 연화 당초 문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가 떡, 떡살 문양을 그 단청 문양, 저기 단청색으로 이 응용해서 한번 넣어 봤어요.

@. 단청에는 주로 어떤 어떤 색깔을 이용하세요, 주로?

#. 거진 단청 문양에는 뭐 그거 오방색에서 나오는 문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쓰지요. 여러 가지 빛을 내죠. 기본적인 것은 오방색으로 쓰고 있어요.

@. 오방색이 뭐, 뭐, 뭐 나요?

#. 적색, 황색, 뭘지? 노랑색, 황색이라 그러지요? 적색, 빨간색 하고. 흰색, 그 다음에 파랑색. 하늘을 뜻하는 뭐 파란색.

@. 무늬에는 어떤 무늬들이 그려지나요?

#. 저희가 쓰는 문양은 거진 뭐 그 전통 문양을 쓰고 있구요.. 뭐 만자 문양이나, 뭐 격자 문양. 뭐 이런 거는 다 격자 문양이나 저런 만자 문양. 뭐 떡살 문양도 있고, 떡판에서 가져오는 떡살 문양.

뭐 다식판 문양도 있구요. 뭐 창살 문양, 꽃, 꽃창살 문양. 우리 주위에서 뭐, 문양은 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당초 문양 같은 뭐. 인제. 그거는 인제 한 뭐 꽃을 이렇게 연결된 문양 같은 꽃이나. 무슨 연꽃이난 이런 거를. 연꽃이나 뭐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것을 당초 문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 삼태극, 사태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인제 이태극, 태극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거를 인제 세 개로 나눠서 할 때는 삼태극이구요. 네 개로 나눠서 할 때는 사태극이구 그러거든요. 지금 문양이 하기 나름이에요. 요런 건 이제 삼태극이라고 말할 수 있구요. 아니 거진사태극 까지만 만들어 써 봤어요.

@. 음각하고 양각 문양은 어떻게 다른지요?

#. 양각하고 음, 음각은 인제 말 그대로, 음각은 그 문양을, 문양을 그 파내서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문양이 도드라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게 인제 음각이구요.. 양각은

인제 그 문양이 이제 걸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게 양각인데. 그거는 인제 우리 기법에서 이제 뭐 음각은 그 문양대로 파서 내뺄어서 그거 갖고 쓰는 게 인제 음각 기법을 쓰는 거구요. 양각은 그 버리지 않고 그 문양을 판 거를 붙이는 게 양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문양을 붙이는 방법 중에, 그 문양을 오려서 구멍이 뚫린 부분을 살려주는 그런 기법은?

#. 아, 그, 아 그런 거 인제 투각 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구멍이 나게 그 형태를 인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인제 투각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구요.

2.5.8. 물풀칠

#. 다 끝났을 때 물풀칠 작업을 해서 끝내면 되겠어요.

@. 작품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다가 인제?

#. 물풀칠 작업을 하고. 또 탄 일반 그 작품들에 인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은 인제 마감재를 칠해야 되구요.

#. 요 등같은 경우는 인제 이 한지 느낌 그대로를 나, 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마감재 칠을 안 하고 그냥 물풀칠 작업만 해서 그냥 쓸 수 있어요.

#. 그래서 인제 요런 게 뭐 마감재 칠해서 뭐 하면은 좀 번쩍거리고 좀 약간 그 고유의 한지 색깔이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등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뭐 물풀칠 작업 하시는 거 하나 하셔야 되나? 풀칠이 거진 다 되기는 했는데, 그래두 또.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농도는 이런 풀칠하는 거보다 훨씬 얇게, 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이제 요런 작업이 보통 한 다섯 번 정도는 해요. 물풀칠 작업 하는 거를.

@. 물풀칠을 해놓으면 나중에 쓰다가 막 물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 어느 정도 애가 물풀칠을 하면서 그 코팅이 돼요. 코팅이 돼서 이렇게 닦아놓고 쓰셔도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손이 많이 가고 소품,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마감재를 칠해 놔요.

@. 한지 공예에서는 보면은 이 한지랑 그 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갖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 이 풀이 말하자면 뭐 접촉제도 되지만, 뭐 마감재도 되고, 뭐 일종의 핑퐁도 낼 수 있고.

#. 이게 처음에 하실 때보다 이렇게 풀칠 해서 좀 매끈한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발르실(바르실) 때보다.

@. 그렇게 마감 물풀칠을 한 다섯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나 이런 건 없나요?

#. 글썄,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이 되죠.

2.5.9. 백골

@. 죽이 선생님 뭐냐요, 죽이?

#. 죽이 그니까는 뭐 그 접착제 할 수 있는 그런 밀가루, 풀 같은 거. 풀 같은 걸로 해서 그 틀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제 종이를 겹겹이 계속 붙여가면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 다음에는 또 인제 시대가 바뀌면서 간편하게, 옛날엔 인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노송나무나 인제 나무 틀을 만들어서, 또 한지를 붙여서도 만들었어요. 근데 인제 요즘에는 와서 인제 이렇게 가볍게 그 쉽게, 이렇게 틀을 합지를 만들어서 틀 전개도를 해서 다 찢라가주구 인제 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인제 기계로 잘르는 거예요, 이렇게. 더 편안해졌어요.

@. 이거를 선생님 뭐라 그러죠?

#. 이거는 인제 배꼐이라고 말을 해요. 합지를 이렇게 제단해서 기본틀을 갖다가 우리 용어로는 배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쉽게 재단을 해서, 그 칼집만 넣어가주구 요걸 조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꺾는 것보다도, 여기가 말끔해질래면은 칼집을 넣어야 돼요. 이게 재단되어 있는 건요, 그냥 이렇게 그 접으면은 요기 이렇게 주름이 가구요, 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이 되어있을 때는 칼집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내지 마시고 상태 봐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꺾어질 수 있게, 요렇게. 요거를 한번 내보세요.

2.5.10. 배접

@. 그 배접은?

#. 배접은 그 저희가 인제 그 작업하다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 인제 문양 작업을 하면

은 이 뒤에다 또 색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배접이라고 얘기해요. 문양을 파서 지금 밑에 보면은 그 염색지, 한지를 붙였지요. 그걸 갖다 붙이는 거를 배접이라고 얘길해요. 그리고 인제 그 하다보면은 배접과 또 합지가 있어요. 합지는 이런 문양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인제 배접이라고 얘길하고. 아니야. 요걸 붙이는 건 배접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 합지야.

@. 그니까 인제 배접은 요기 이렇게 한 다음에 고 위에 덧대갖고 무늬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죠?

#. 예.

@. 약간 그 음영이 있게?

#. 입체감도 있고, 음영도 있고, 음영.

@. 그리고 그냥 종이를 단순히 인제 이렇게 그 계속 붙인 거는?

#. 합지라고, 두툼하게 만든. 그런 인제 두 번을 붙이면 이합지라 그러구요, 이제 세 개를 붙였으면 세합지라 그러구 그래요.

@. 보통은 한 몇, 몇 번?

#. 근데 보통은 인제 그 초보 때는 한, 거진 이합지를 갖고 써요, 문양은.

2.5.11. 탈지공예, 탈색공예, 고색공예

@. 선생님 아까 그 전지 공예, 전지 공예의 종류가 한 두 개 정도로 나뉘진다고?

#. 아, 전지 공예, 그 두 종류로. 색지로만 발라서 붙이는 경우가 있구요. 이렇게 탈색을 시켜서 이렇게 발르는 경우가 있어요.

@. 그러면 탈지시켜갖고 하는 거를 인제 탈지공예, 이렇게 하고?

#. 탈색공예. 예예.

@. 탈색공예, 이렇게 하고?

#. 그러구 인제 요즘에 와서는 그걸 뭐 인제 그 협회마다 부르는 그 이름들이 있는데, 뭐. 고색공예다. 뭐 이렇게 얘길 하고 있어요. 옛날 색깔공예다, 뭐 이런 거. 그니까 옛

날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탈색을 시키는 거죠.

@. 본래는 뭐, 고색공예는 요즘 들어서 만들어낸 것?

#. 쉽게 말한 게, 그냥 탈색을 시켜서 탈색공예라 그러는데요.

2.5.12. 초배치고, 색지치고

@. 옛날에 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과정을 좀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아, 옛날에 저희가.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다 기계로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 섬세한 것까지 다 저희가 칼로 잘라서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기 그 전에는 또 많은 힘이 들었겠죠. 그 나무로 짜서 거기다가 인제 뭐 기초 작업을 하고 초배를 치고, 그 다음에 색지 치고 이러구 했거든요.

@. '친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나요?

#. 이제 '붙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인제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구요.

@. 선생님,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붙이는 이런 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 글썸요. 이거 뭐 그냥 붙이는?

@. 붙인다고 하시나요?

#. '조립을 한다' 그러죠, 본드 칠해서.

@. 원래 이거에다가 이렇게 그 지금 덧대는 방법이잖아요, 요 덧대는 요거를 뭐라고?

#. 아, 요거는 그 이 기본으로 붙이시구요, 요거는 인제 보조 다리라고 그래요.

@. 보조 다리요?

#. 애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 다리를 더 다는 거예요, 속에다가.

@. 안 ? 그거는 배꼐이라고는 안 하죠? 그것도 배꼐이라고?

#. 아니요, 그냥 그거 인제 그때서부터 인제 뭐 옷을 입었으니까 인제 지 이름 붙였지 요, 뭐.

@.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지 붙여갓구, 지금 이게 탈색이 된?

#. 아니, 그거는요, 염색, 염색지를 붙여가주구요, 거기다가 좀 색을 칠했어요. 아 이거 초배는 아니에요.

@. 그냥 한 장만 붙여갓구 끝내는 거는 초배지라고 안 하는 건가요?

#. 저희가 옷을 입으면 인제 속옷을 입듯이, 애도 인제 그렇게 하는 거를 초배라고 해요.

@. 선생님 그 전지 공예에서요, 그 골격에다가 흰 한지를 이렇게 초배한 다음에 두꺼운 모양을 올려 붙이고, 그 위에다가 색지를 두께에 따라서 한 겹 또는 두 겹으로 붙이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 아, 초배를 붙이고 나서 두꺼운 종이를 한번에 붙이지는 않구요, 인제 얇은 종이를 인제 몇 번씩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인제 문양 작업을 하거든요.

2.5.13. 칼선을 넣다

@. 아까 이렇게 반, 그 칼질을 하실 때, 완전히 자르지 않고 한 반 정도만.

#. 예.

@.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 아, 이건 인제 두껍구요, 생각보다는 좀 단단해요. 그래가주구 한 번에 짜를려면은 힘도 들어가구요, 잘 안 잘라져요.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나눠서 잘르시는 게 깔끔해져요. 아, 이게 한 번에 잘르려면은 모양도 잘 안 나오구요, 힘도 들고 그래요.

@. 요기 보시면은 요기 접는 부분이요, 요기 접는 부분에 지금 칼자국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 예, 예.

@. 근데 완전히 자른 건 아니고.

#. 네.

@. 한 반 정도만 칼로 요렇게 오려?

#. 그거를 인제 '칼선을 넣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인제 그 접으려고 할 때는 인제 한번 칼집을 넣잖아요. 그걸 갖구 인제 칼집을 넣는다 그래요.

@. 다르게는 얘기 안 하시나요?

#. 다르게 인제 하는, 하는 사람마다 인제 좀 틀려요. 뭐 칼집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 이 자체에서 이거 틀을 그 자를 때는 '반칼을 넣는다'고 얘길 하고 그래요. 반칼, 그니깐 여기 온칼을 넣어서 이렇게 다 잘르잖아요.

@. 예, 온칼, 반칼.

#. 예, 여기는 인제 그 반만 칼집을 넣는다 그래서 반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칼집만 넣어서 요렇게 접을 수, 꺾어질 수 있게.

@. 그러니까 다 접는 부위는 칼집을 넣어서?

#. 그니깐 꺾어질, 꺾어질 때에 애가 상처를 입지 않게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 선생님, 칼집을 넣고 저렇게 꺾는 거는 뭐라고 얘기 안 하나요?

#. 칼집을 넣고 꺾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애가 이렇게 들 꺾어지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힐 수 있게 그래서 요쪽은 칼집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두 개씩 붙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인제 한 겹으로 하는 거하고, 이 이 두 겹으로 하는 거하고 일단은 무게감이나 미적으로도 좀 낮거든요.

2.5.14. 한지등 부분명칭

@. 그러면은 인제 그 갓, 등의 몸통 부분에 해당되고?

#. 그렇죠.

@. 그리고 아까 했던 것은?

#. 이것은 다리 부분이 되겠어요.

@. 그러면 이 그 등의 윗쪽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 윗쪽 부분이요? 이 부분? 아, 우에는 인제 이거를 닫을 때, 애를 인제 뚜껑이라고 얘

기를 해요.

@. 아, 뚜껑이요?

#. 덮는 뚜껑. 이제, 그 만들었을 때, 우에 이렇게 덮는 뚜껑이라고 얘길 해요. 그래서 칼집을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2.5.15. 접착제

@. 그렇게 그 본드를 이렇게 이렇게 펼 때는 그런 종이를 이용하셔갖구 하시네요?

#. 아 그거는 인제 이게 펼 때 용이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예요.

@. 예전에는 이 본드가 없었을 때에는 선생님 뭐로 주로?

#. 그 옛날에는 그 뭐 송진이나, 아교나 뭐 이런 것 갖고 다 접착을 했다고 그러네요. 인제 요게 조금 숙달되면은 저희가 이 본드 안 쓰구요, 또 순간접착제를 써요. 근데 인제 초보 하시는 분들은 한 몇 달 정도는 그냥 거진 다 돼지 본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붙였어도 이렇게 한 번 또 펼 수도 있고, 또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 움직여도 되고 이러는데. 순간 접착제는 한번 붙어버리면은, 불편해서.

@. 전지 공예 하면서 풀은, 다른 것도 있지만 접착제로 풀도 쓰잖아요?

#. 네, 거진 인제 배풀 작업할 때는 본드, 본드로 쓰구요. 고 다음에 인제 한지를 붙일 때는 그 일반 우리 그 밀가루 풀로 써요.

@. 일반 쓰는, 그 문구점에서 쓰는 풀 아니구요?

#.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 한지는 그 인제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젖었을 때는 약간 늘어나요. 또 말릴 때는 약간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거를 쓰면은 이 한지의 본래 작업,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종이가 딱딱해질 수가 있고. 또 그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그 한 되배지(도배지) 풀이나 밀가루 풀, 이런 걸 갖고 쓰고 있어요.

@. 선생님 작업하실 때 주로 밀가루 풀을 쓰시게 되나요?

#. 네, 그렇죠. 인제 뭐 밀가루, 뭐 쌀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인제 최근에 와서는 밀가루 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인제 쌀풀을, 그, 그 인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 풀을 그 인제 숙성시켜서 이렇게도 썼다고 그래요. 인제 그 뭐. 많이 인제 이렇게 재워 그 한 1, 2년씩 뭐, 오래. 이제 우에가 썩으면은 거뒤편고 숙성시켜서 뭐 그렇게도 썼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뭐 밀가루풀을 뭐 풀어서 인제 밀가루 풀어서 이제 최근 많이 쓰구요. 또 쉽게는 뭐 만들어진 풀 갖다가두 쓰구 그래요.

@. 고거는 인제 뚜껑을 붙이기 위해서 안에다가?

#.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그러죠, 뭐. 하하. (웃음) 솜씨가 뭐. 골격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인제 하면, 이게 해서 인제 색지를 붙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여기 인제 한지를 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거 추장스러워서. 일단 여기 밑에를 먼저 붙이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골격을 맞춘 다음에 다시 여기 작업을 할게요. 종이가 그 약품 처리를 했을 때 그 탈색이 될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걸 인제 탈색 종이라고 하는데. 그,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이 염색을 할 때 그 뭐 약품 처리를 할 때 탈색이 잘 되게 뭐 이렇게 안 넣는 약품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고걸 인제 탈색 종이라고 하는데.

2.5.16. 전지 공예 도구

@. 선생님 저거는 뭐냐요?

#. 그 우리가 말하는 거는 '헤라'라고 말을 해요. 그니까는 이게 그 이렇게 공기도 좀 빼주고 접착을 좀 잘 시켜줄려구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붓 갖고도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여러 번 이게 잘 다듬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공기 차고 이르문(이러면) 뜨거든요. 이제 안에 공기가 있어서 이 부풀어오는 거를 인제 우리는 '뜬다'고 얘기를 해요.

#.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뜬어주시면 돼요. '찢는다', '뜬어낸다', '뜬는다' 뭐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이제 풀을, 이제 붓질을 잘 하는게 그 종이가 인제 풀을 잘 먹거든요.

@. 붓으로 이렇게 막 붙이는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 어, 그냥 뭐 '붙인다'고 얘길 하죠 뭐. '종이를 붙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선생님은 다시 인제 붙일 종이를 자르시는 거죠?

#. 요것두 인제 종이를 뜬어서 이렇게 붙이려면요, 이 모서리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요기를 먼저 붙여놓고 인제 작업을 할꺼니까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애가 그

젓어있을 때 종이가 잘 잘라져요.

@. 그런 가위를 뭐라고 얘기는 안 하시나요?

#. 저희가 여기서 쓰는 거, 인제 '쪽가위'를 쓰긴 해요. 근데 이 쪽가위 보다는 이게 좀 더 편리해서 언제가서부터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 근데 이거는 '쪽가위'라고는 안 하고?

#. '작은 가위'라고 얘기 하거든요. 그전에는 거진 다 쪽가위로 썼어요.

@. 이 큰 붓은 언제 쓰시나요?

#. 인제 큰 거, 뭐 장농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구요, 저렇게 합지 만들 때 쓰고 그래요.

@. 근데 요거랑 요거랑 차이나는 거는, 요거는 요게 탈지 공예?

#. 아니 여기 다같이 전지 공예거든요, 예. 근데 애하고 애는 인제 그 배접을, 그 애는 배접을 해가주구요 다시 한번 봤어요. 애는 인제 색지로 그냥, 같은 색지로 해서 배접을 해서 그냥 다시 한번 파낸 거구요. (예.) 애는 그냥 염색지로 한 번 붙이 거예요.

@. 이렇게 좀 그 원래 크기보다 넓게 이렇게 오리시잖아요, 그 넓은 그 여백 고거를 뭐라 그러죠?

#. 여기에서 쓰는 거는요, 저희가 재단하면서 쓰는 거는 시접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찢어낼 거래서 그냥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 딱 맞게 해서 뜯을래면 잘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거는 또 찢는 거래서, 인제 여기 풀이 좀 묵어, 이렇게 먹어야 애가 이제 부드럽게 잘 찢어지죠. 한지가 풀을 좀 먹어야 돼요.

@. 헤라를 이용해서가주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뭐라 그러세요?

#. 공기를 그냥 빼주는 거죠. 접촉시켜주는 거예요. 뜯어낼 수도 있구요, 또 여기는 딱 맞게 재단을 해서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는 사람마다 고 조금 인제 방법은 조금씩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요런 이음새 부분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고 있어요. 이 붓칠은 그냥 뭐 겉에다 풀칠 하는 거 보다두요, 잘 접촉이 되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2.5.17. 과반

@. 과일이나 어떤 뭐 이렇게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 내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 아 과반이라구 얘길 하죠.

@. 과반두 많이 만드시나요?

#. 네, 과반두 많이 만들고 있어요.

@. 과반의 종류가 좀?

#. 과반에두 뭐 인제 그건 형태에 따라서 6과반, 8각 과반 저기 이렇게 얘길 하는데요. 뭐 옛날엔 뭐 떡두 담아낼 수도 있구, 과자도 담아낼 수도 있구. 근데 과반, 글썸 과반 뭐 그거를 종류로 말하라 그러면은. 모양에 따라서 그냥 이름은 지어요. 사각 과반, 육각 과반 뭐, 팔각 과반 뭐.

@. 뭐 십각 과반 이렇게도 되나요?

#. 저희는 뭐 그 이게 유물에 보면은 거진 육과반하고 팔과반을 많이 했어요.

3. 장성우 제보자

3.1. 지승 공예

#. 도구는 가위하고 쪽가위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걸 풀도 필요 없고. 이걸 엮어가는 거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없고 그래요, 지승은.

#. 그리고 이게 가벼우면서, 이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벼워요. 도자기가 이 정도 크기면은 굉장히 무겁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가벼워요. 가벼움성과, 고 담에 변화를 쉽게 줄 수 있는거. 손 쉽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제가 매료됐죠.

#. 가늘게 꼬개고 싶다 그러면은 세 번으로 나누구요, 더 가늘게 하고 싶다 하면 네 개로 나누고. 고담에 이제 뭐 요정도 굵기로 하고 싶다, 요정도 굵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한 번만, 한 번만 하겠습니까. 아주 가는 거는 사실 꼬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 딱 용어가 한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씨줄, 날줄. 근데 이게 지금 씨줄이 될 수도 있

고 날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우물정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기 이제 구멍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가운데다 뭐를 넣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받을.

#. 한번이 빠질라 그럴 때는 그 뒤에 있는 사변이 이걸 못 나가게끔. 이 고리가 돼져 있잖아요. 고리라 그러거든요, 예. 고리라고 해서 못 나가게끔 해 주구요. 고리가 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형태가.

@. 고리를 잡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 그렇죠. 오무린다 그래요, 그냥. 간격을 좁히니까 그냥 오무린다고 표현을 해 주구요. 그래서 구멍을 내서 나중에 뭐 여기다가 등으로 만들려 그러거든요.

#. 여기 씨줄이라고 하고, 인제 이 씨줄이 될 수 있는 거를 풀어서, 이제 풀어 쓰는 거예요.

@. 찢던 걸 다시 풀어요?

#. 네. 찢던 걸 다시 풀어요. 힘이 없어요, 안 꼬면은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꼬는 게. 먼저 해 볼까요? 이게 항상 찢르면 두 장씩 다녀요, 두 장. 이것도 피면 두 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장. 그죠?

#. 네, 비벼주는 거예요. 밑에 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원리가 손바닥 안에서는 각자가 놀구요, 이렇게. 각자가 돌구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게 바뀌잖아요, 손이. 아니, 그 실, 종이 실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요기는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예.

#. 실하고 같이 표현 해 주면 합사시킨다고 얘기 해 줘요. 실을 같이.

#. 그래서 꺼꾸로 이렇게 돌려주면.

@. 마무리할 때는 꺼꾸로 돌려주나요?

#. 네. 반대로. 예예. 비비는 거예요. 네, 비비는 거예요. 이게 비벼지는 거잖아요, 손바닥 안에서요. 비벼지니까 도는 거예요, 이게.

#. 그런데 요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잘 못 꼬는데 또 하나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말아요.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빈다고요. 여러 날 하시는 분들은 좀 능숙하잖아요. 불규칙한 것도 하지만은 이렇

게 풀어노면은요 힘이 없어요. 이 뼈대, 이걸 만들어 노면요, 주저앉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엮는 방법도 달라요. 이렇게 비빈거 하고 어떻게 다르냐하면, 이렇게 끈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가면서 엮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려줘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비빈거는 반대로예요. 이렇게 엮어간다고요, 이렇게. 꺼꾸로. 이렇게. 이거를 이게 힘이에요, 힘. 제가 씨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날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힘을 받쳐주는 뼈대예요, 뼈대. 뼈대라 그래요.

#.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 갈쿠리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안 쓰는데, 갈쿠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틈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힘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힘을 주는건 조금 저기 큰 형태는 못 만들어요. 크기가 커져가면은 서 있질 못해요. 콧 주저앉는다고요.

#. 이걸 엮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엮어간다고 얘기하는데.

#. 흠심이요? 그거는 예, 그거는 이거예요. 지금 반대예요. 이렇게 해서 파서 만든 사람은 풀어 쓰는 거구요, 요렇게 해서 비벼서 쓰는 사람들은 흠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심자잖아요, 심. 그죠? 그게 심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끈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씨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반대죠. 이걸 이제 콧 봤다가 다시 풀어서 쓰는 겁니다.

@. 결국은 그게 흠심이 되는거고, 겹심이 되는거고?

#. 그렇죠. 근데 겹심이라고 안 써요. 아마 최형준 선생님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흠심, 겹심 이렇게 쓰지 않구요. 용어를 저기 실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거 하면은 끈사, 뭐 이렇게 푼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풀러서 쓰잖아요. 이게 아까 비튼 건데요, 강도면에서는 조금 달라요. 용어는 이제 저희는 그 저기 지승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 노끈, 노나기 이런 식으로는?

#. 그렇죠. 노역개라고도 얘길 했는데. 사실 노역개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한 용어는 몰라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 유래될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역개가 엮는다는 뭐 그런게 있는데. 그 제가 일본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역개, 노역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게 지승이 어떤 특정한, 뭐지 별도로 발달한 게 아니라 짚풀문화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일단 기본적인 거, 이게 기본이에요. 둥구리라든지, 아니면 멧석이라든지. 주로 많이 쓰는 게 멧석, 아니면 멧방석, 멧돌. 이렇게 하는 거 있지않습니까. 멧방석.

@. 둥구리는 뭐냐요?

#. 둥구리는 뭐 이제 잡다한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윗부분이 없는 거, 둥구리예요. 이걸 위에 부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용어는 없죠. 이 형태는 없어요. 구멍을 낸다는지, 뭐 없고. 목이 짧은 거, 목이 짧고 뚜껑이 있는 거. 뚜껑이 있어요, 요렇게. 그런 걸 이제 둥구리라 그러고.

#. 그 답에 그 여자들 가마, 가마 타고 가면은 멀리 가잖아요. 가마 타고 간다는 건, 그럼 이제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요강처럼 만드는 거, 그걸 요로라 그래요. 요로. 보통 뭐 하나하면 시집 갈 때, 시집 보낼 때 엄마가 그걸 넣어 줘요. 가다가 그거 하라고. 근데 쇠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솜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솜을. 소리 나지 말라고. 근데 종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종이, 지승으로 만든 요로라는 그 요강을.

@. 전통적으로 종으로 만든 요로가 들어가나요?

#. 네. 쪼고만 거, 크지 않은 거.

#. 옷칠이라든지. 옛날에 흔한 게 뭐냐하면은 옷칠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너무 귀해졌죠. 다른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옷칠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옛날보다 생산이 굉장히 줄죠. 아니면은 또 감물, 기름.

@. 감물어요?

#. 네, 감물.

@. 이게 감물?

#. 네, 감물이에요, 이거는.

@. 감물이 뭐냐요, 선생님?

#. 감, 팽감 있어요. 팽감이 있는데 그거를 익으면은 감물이 나오질 않아요. 팔월 달 정

도에 사람들이 먹으면 뚫다는 땀감들이 있어요. 그거를 반을 쪼개서 흡집을 내 가지고 물에다 삭혀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젤라틴이라는 성분이 나온대요. 그게 뭐냐하면 코팅 해 주는 작용을 해 준대요, 그 성분 자체가. 그리고 딱딱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요.

@. 색깔은 그냥 물감같은 걸로 칠하는 건가요?

#. 아니요. 색깔이 갈색 나와요.

@. 아.

#.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감물, 감즙내는 거죠. 즙. 즙을 발르는 겁니다.

#. 세숫대야도 이런 지승 말고 지호로 한 세숫대야 있잖아요. 그거는 들기름 같은 걸 맥여놔요, 절여놔요. 그러면은 그게 코팅역을 해 줘서 방수 역할을 해 주고 물을 담을 수 있고.

#. 그렇죠. 칠이죠, 칠. 그러니까는 칠의 개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페인트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칠 그러면은 굉장히 화공약품을 하는 걸 다 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천연물감 이런 것도 다 칠이에요. 아까 보신 빨간 거 있죠? 빨간 색 종이. 그건 종이 뜰 때 일부 물감 들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칠을 해요. 색깔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 후염, 후염이에요.

#. 이거를 만약에 용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날줄넣기죠. 아니, 씨줄넣기. 참 죄송합니다.

@. 옆으로 늘릴라고 할 때.

#. 네. 사이사이에다가 공간을 매꿔주는 겁니다, 공간을. 여기서부터는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죽죽 빼는 거는 아니구요. 여기서 빼 줘요. 여기는 빼 준다고 보다는 여기서 빼 주는 겁니다.

#. 바닥이라고 하고 여기는 위라고 하는데 바닥은 사실은 오무러지는 것이 빼준다고 보다는 하나씩 더 넣어서. 오무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안으로 너무 들어가는거를.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빼주면 안 되고 여기서 빼 줘야 돼요. 그냥 가면은 오무라들어요, 자연스럽게. 번지지 않고,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만들다보면은 이제 씨줄을 넣어야겠다, 씨줄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어떤 특별한 용어는 없어요. 예.

#. 너무 촘촘히 넣어 버리면 막 뒤틀려요, 이렇게. 뭐냐 하면은 밥이라고 얘기해요. 밥. 예. 돌아가는 이 밥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원주율의 길이보다 커지면 막 돈다는 겁니다.

@. 밥이 뭐예요?

#. 이거예요. 실 전체를 밥이라고 그래요. 밥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보통 저기, 아마 그런 거 같애요. 용어가 우리가 실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마 개념으로 아마 어르신들은 썼던 것 같애요. 저 가르쳐주신 분도 밥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니까는 씨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개 한 개가 더 많이 들어간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엄지, 이 오른손은요, 왼손은 그냥 뭐 이걸 잡아주기만 하지 오른손은 항상 비틀어요, 이렇게. 이렇게.

@. 이렇게 해 주는 게 돌려주는 거죠?

#. 네, 돌려주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구요.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그래야 여기 힘이 생겨요, 힘이.

#. 여기는 왜 그러냐하면 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더 두꺼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끝은 사선으로 날려서 이렇게 하면.

#. 여기에 뭐 이렇게 고리, 고리 만든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별도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거요. 용도에 따라서 요거는 요기까지 와 가지고 안으로 밀어 느면은 되거든요

@. 아, 밀어넣는다. 안으로. 예예. 공간이 어느 정도 다 찼으면은 안으로 밀어 느면은 이게 다 매꿔져요. 거의 인제 이렇게 그 끼워넣는 방법이에요. 다 이렇게 끼워넣는 방법이 있고. 이제 포그만 소품같은 거 만드는 거는 인제 별도로 이제 끼워넣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소품은. 포그만 목걸이 같은 거 만들면 네 줄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끝이 끝부분이 밑에 이렇게 조롱박처럼 생겨가지고 네 개가 나오면 이런 거는 이제 묶어요. 묶는데 어떻게 묶냐하면, 묶는 방법도 항상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 반대로 끼면 안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반대로 끼면은 이걸 잡아땡기면 딱 안으로 밀려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통그러져요. 이렇게 끼면, 이렇게 끼면.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끼워서 요렇게 넣고, 이게 이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잡아땡길 수 있는 길이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안으로 넣는 거예요, 이 안으로. 안 보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 이걸 이중이에요, 이중. 앞뒤가 똑같이 됐는데. 이거는 이중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다 형태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중으로 짜야 돼요. 두 겹으로, 앞뒤로. 그러니까는 뭐냐하면, 안에 꺼를 먼저 짜요. 안에 꺼를 짜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끝이 이제 마무리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요로라는, 그 물이 새지 않는 것들. 이게 아 겹으로, 이것도 겹이 아니거든요. 겹으로 짜야되는 건 물을 넣어야 되는 것들. 고담에 새면 안 되는 것들을 주로 겹으로 많이 짜요.

#. 지금 그 그림에 있는 거는 주병이잖아요. 저게 두 겹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저런 거는 두겹으로 짜야 돼요. 지승을 짜면서 이렇게 그 종이 한지를 안쪽에서 붙여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안쪽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종이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가면서 조금조금씩 붙여가면서 올라와요. 고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뭘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풀을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완벽한 게 없어요, 현대에서는. 옷칠로 해서 싹하고 풀 만들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월이 오래 지나고 하면은 그것도 그 노화가 되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끼워넣는 거는 빼지만 안는다면은 그냥 있는 거죠.

#. 이거, 저거네. 외겹이네, 외겹. 그래서 칠을 해 냐구나. 단단하게 마감재 코팅재로. 주로 저는 옷칠이나 감물로 해요. 들기름. 네. 들기름 해 놓는 거는 잘 안 찢어가지고 굉장히 애 먹어요. 굉장히 애 먹었어요.

#. 저는 둥구리 하고요. 멧방석, 멧석, 고담에 조족등이라는 거요. 지승옷도 만들었어요. 옷인데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속옷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한지 공예란?

한지 공예는 전지 공예, 지승 공예, 지호 공예, 지화 공예 등 한지를 이용하여 만드는 공예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한지 공예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 종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생활용품, 문방용품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실용성에 비중을 둔 한지 공예품은 다른 재료로 만든 것에 비해 제조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여러 종류의 물건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최근 한지와 한지 공예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이는 전통을 계승 발전하려는 의식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다.

옛날 한지 공예는 자투리 종이를 이용하던 것이어서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오늘날의 한지 공예는 자투리 종이 아닌 한지 공예를 위해 다양한 한지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지 공예품들의 문화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는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서민적이지 않고 고품격을 갖춘 공예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지 공예에 관련된 어휘는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조상 때부터 화려하게 발전해서 내려오던 공예라기보다는 오늘날에 더 응용되고 더 발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한지 공예 관련 현장에 쓰이는 어휘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휘도 있지만 한지 공예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어되기도 한다.

한지 공예는 제작기법에 따라 크게 전지 공예, 지승 공예, 지호 공예, 지화(紙花)공예, 지화(紙畵)공예로 나뉘어진다. 실제 공예품을 만들 때는 기법 등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한다.

1.1. 전지 공예

전지 공예(이부옥 씨 제보)는 오색 공예(김원자 씨 제보), 색지공예(장성우 씨 제보)라고도 한다. 보통 공예를 빼고 ‘전지’라고도 한다. 전지 공예는 한지 공예의 한 종류로, 하드보드지나 나무로 된 백골에 오색 한지를 오려 붙여서 마감재를 칠해서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만드는 일이다. ‘전지’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뜻풀이는 색종이

를 접어 가위로 무늬를 내어 부채에 오려 붙이는 일이어서, 뜻풀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지 공예에서 색지의 색깔을 탈색시켜서 만드는 기법의 공예를 탈색공예라고 한다.

- ⇒ 지호로 틀을 잡아갖고, 하나는 지승이고 하나는 {전지고} 그래요.
- ⇒ {오색 공예라} 하면 저런 색한지를 쓰는 거예요.
- ⇒ {색지공예를} 배웠어요.
- ⇒ {탈색공예는} 탈색을 시켜서 발르는 거예요.



[사진 1] 오색 공예

1.2. 지승 공예

지승 공예는 한지 또는 다른 종이를 꼬아서 만든 끈을 엮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다. <표준>에서는 지승은 ‘빔지’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빔지’는 종이를 비벼 꼬아서 만든 끈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지승은 <표준>에서 빔지와 동의어라 하였다. 빔지는 종이를 비벼 꼬아서 만든 끈을 의미한다. 조사과정에서 노역계라는 어휘는 알고 있었지만 두 제보자 모두 지승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지승실이라고도 한다. 종이를 꼬는 것이 실을 꼬는 것과 유사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 ⇒ 지호로 틀을 잡아갖고, 하나는 {지승이고} 하나는 전지고 그래요.



[사진 2] 지승실

1.3. 지호 공예

지호 공예는 한지를 물에 불려서 여러 가지 부재료를 섞어 함지박, 화병, 탈 등을 한지를 이용한 공예이다.

- ⇒ 쫓그만 {함지박}, 지금 저 큰 {함지박}, 세수대야는 해 났구.
- ⇒ 요런 건 {화병이라구} 그래요.
- ⇒ {지호로} 틀을 잡아갖고, 하나는 지승이고 하나는 전지고 그래요.



[사진 3] 지호

1.4. 지화 공예

지화(紙花)공예는 한지로 만든 꽃이나 한지 꽃을 만드는 일이다. 주로 무속의식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지화(紙畵)공예는 한지 위에 그린 그림이나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 {지화는} 종이꽃이에요.



[사진 4] 지화(紙花)



[사진 5] 지화(紙畵)

다음은 한지 공예 중 전지 공예, 지승 공예, 지호 공예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우선 전지 공예의 구성, 재료, 제작도구, 제작과정, 완성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전지 공예

2.1. 전지 공예의 구성

2.1.1 골격, 목골, 백골

골격은 <표준>에서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틀이나 줄거리라고 하였다. 전지 공예에서 골격은 나무로 된 목골이나, 한지를 합지해서 이용했으나, 요즘에는 두꺼운 도화지인 하드보드지를 주로 많이 이용한다. 전지 공예의 뼈대가 되는 틀을 백골이라고 한다. <표준>에서는 수공예에서 뼈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옷칠을 하지 않은 목기(木器)나 목물(木物)을 일컫는다고 하여서 목기와 목물로 국한해 놓고 있다.

⇒ {골격을} 만들어서 {하드보드지}로도 하구요, {목골}로도 하구요.

⇒ {백골은} 이제 그 종이를 갖고 {틀}을 만드는 거 갖다가 {백골이라} 그래요.



[사진 6] 백골

2.1.2. 문양

전지 공예의 문양은 전통적인 문양을 주로 이용한다. 문양의 종류에는 전통문양, 동물 문양, 응용문양, 문자문양, 기하문양 등을 들 수 있다.

- ⇒ 한지를 가지고 {문양을} 파고 또 두꺼운 {문양이} 필요하면 합지를 해요.
- ⇒ 크게 나눈다면 문양이 새, 동물, 전통문양 또 {기하문양} 그렇지요.
- ⇒ {전통문양에} 희자 문양도 있구요.

1) 길조길상문양, 십장생문양, 나비문양, 박쥐문양, 당초문양
동물, 식물문양은 동물, 식물이 들어간 문양을 일컫는다.

남성, 여성 물품에 즐겨 들어가는 문양이 있다. 남성의 물품에 들어가는 문양에는 박쥐 문양이나 나비문양이 주로 쓰인다. 좋은 의미를 지닌 길조나 길상문양, 십장생문양이 있다.

- ⇒ {길조} {길상서부터} 그 작품에 어울리는 문양을 자기가 골라서 써야죠.
- ⇒ 십장생 같은 거를 주제로 하는 것이 {십장생문양}이다.



[사진 7] 박쥐문양



[사진 8] 동물 문양-나비, 용, 사슴



[사진 9] 길조 길상 문양

식물문양에는 당초문양이 대표적이다. 당초문양은 덩굴문양으로, 띠 형태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문양이다.

⇒ 연꽃이나 모든 것을 연결시켜 만드는 것을 {당초문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진 10] 식물문양 2



[사진 11] 당초문양

2) 경첩응용문양, 떡살문양, 다식판문양, 창살문양, 꽃창살문양, 단청문양, 머리초문양
응용문양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문양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문양이다. 경첩응용문양, 떡살문양, 다식판문양, 창살문양, 꽃창살문양, 단청문양, 머리초문양 등이 있다. 머리초문양은 단청 윗부분에 들어가는 문양이다.

- ⇒ 그거는 인제 {경첩응용문양이라고} 하지요.
- ⇒ 단청 맨 위에, 기둥에 쓰는 {머리초문양이} 있어요.
- ⇒ {창살문양}, {꽃창살문양}, 우리 주위에서 문양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 ⇒ {다식판문양도} 있구요.
- ⇒ {단청문양에도}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 ⇒ 떡판에서 가져오는 {떡살문양이} 있어요.



[사진 12] 창살 문양



[사진 13] 꽃창살 문양



[사진 14] 떡살문양



[사진 15] 단청문양

3) 문자문양

문자문양은 문자를 본뜬 문양이다. 만(卍), 희(囍), 수(壽)자 등을 쓴다.

⇒ {문자문양}, 태극문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진 16] 글자 문양



[사진 17] 문자문양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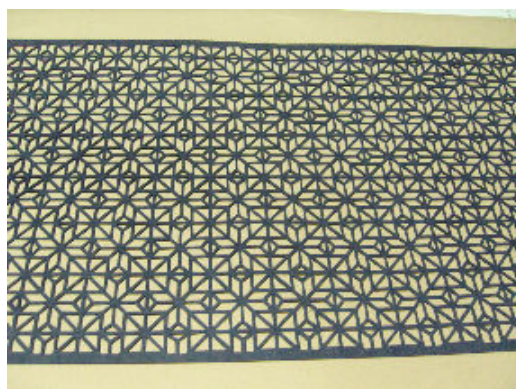
4) 격자문양

기하문양은 다양한 도형이 연이어 있는 문양을 일컫는다. ‘격자문양’은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구조나 물건 또는 그런 형식, 그런 문양이다.

⇒ 이런 거는 다 {격자문양}, 저건 만자문양, 문양이 많아요.



[사진 18] 기하문양 2



[사진 19] 기하문양 1

5) 삼태극, 사태극, 오택극

전통적인 문양으로 태극문양은 구성하는 색깔의 종류에 따라 삼태극, 사태극, 오택극 등으로 나눈다. 오택극은 오방색으로 구성된 태극문양이다. 오방색은 빨강, 청색, 노랑, 초록, 까망의 다섯가지 색을 일컫는다. 사태극은 빨강, 노랑은 꼭 들어가고 청색, 초록, 까망

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다. 삼태극도 빨강, 노랑은 꼭 들어가고 초록, 청색 중에 선택해서 태극을 구성한다.

- ⇒ 지금 인제 {삼태극에도} 이걸 썼지만 초록색을 여기 넣어도 괜찮아요.
- ⇒ {사태극에는} 네 가지 색이고 거기서는 아무 색이나 빠져도 상관없어요.
- ⇒ 삼태극, 사태극, {오택극까지도} 있죠.
- ⇒ 칼끝을 똑바로 세워서 돌리기도 하지만 이런 {태극문양}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진 20] 삼태극문양



[사진 21] 사태극문양

6) 귀문양

문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른 문양명칭이 있다. 띠로 형성된 문양을 띠문양이라고 하고, 모서리 부분에 붙이는 문양은 귀문양이라고 한다. 여기서 ‘귀’는 모서리를 일컫는 말이다.

- ⇒ 여러가지 응용문양이 있는데요. 문자도 있구, {띠문양도} 있구 또 {귀문양도} 있구.
- ⇒ 모서리에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는데 그 작품에 맞는 문양을 {귀에} 맞는 문양을 찾아서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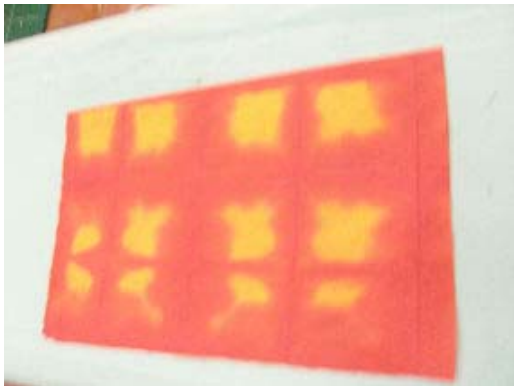
[사진 22] 귀문양

2.2. 전지 공예의 재료

2.2.1. 색한지, 뿌림지, 염색지, 구김지, 이합지, 삼합지

한지 공예의 주재료는 한지이다. 한지는 색한지, 뿌림지, 염색지, 구김지, 이합지, 삼합지 등으로 나눈다. 색한지는 다양한 색깔의 한지를 일컫고, 만드는 방법에 따른 종류로 뿌림지, 염색지, 구김지가 있고, 한지를 몇 장씩 겹쳐서 만든 겹지의 종류가 있다. 뿌림지는 물감을 뿌려놓는 효과를 낸 한지이고, 염색지는 염색을 한 한지, 구김지는 구김이 간 한지이다.

- ⇒ 오색 공예라 하면 저런 {색한지를} 쓰는 거예요.
- ⇒ {뿌림지}는 저게 한 색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가지 색이 나와요.
- ⇒ 애는 그냥 {염색지}로 붙인거예요.
- ⇒ 어떤 문양을 정하면 그 문양을 {이합으로} 할건지 {삼합으로} 할 건지 정해요.
- ⇒ {구김지}는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요 주름 저서 말리기 때문에 주름이 막 가 있어요.



[사진 23] 염색지



[사진 24] 구김지

이합지는 한지를 두 번 붙인 한지이고, 삼합지는 세 번 합친 한지이다. 합지를 한 장 할 때마다 ‘사합지, 오합지’ 지칭된다.

- ⇒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서 {오합}, 십합, 칠합까지도 해요.
- ⇒ 초보 때는 거진 {이합지}를 갖고 써요.
- ⇒ 이제 세 개를 붙였으면 {세합지}라 그러구.



[사진 25] 색한지



[사진 26] 한지

2.2.2. 감자풀, 옥수수풀, 밀가루풀, 누시리하다

전지 공예에서 사용하는 풀은 감자풀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녹말가루로 썬 풀을 일컫는다. 옥수수풀도 선호하는 풀 중의 하나이다. 밀가루풀도 이용하기는 하나, 밀가루풀로 마감을 하게 되면 풀칠한 데가 허영게 자국이 나는 단점이 있어서 녹말가루를 이용한 감자풀을 이용한다. 그 풀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로 되직하다, 누시리하다 등이 있다. 되직하다는 된 것이고, 누시리하다는 물기가 기준보다 많이 들어간 것을 일컫는다. 조금 눅다는 의미이다.

- ⇒ {감자풀도} 자국이 나더라구 근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자국이 안 나오.
- ⇒ 원래는 {옥수수풀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 ⇒ {밀가루풀은} 말랐을 때 허어져요.
- ⇒ 주머니에다가 날콩가루를 넣어가지구 날콩가루 물에 개서 지룩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 ⇒ {누시리하게} 붓이 잘 나갈 정도의 농도로 해요.



[사진 27] 풀 1



[사진 28] 풀 2

2.3. 전지 공예의 도구

2.3.1. 재단칼, 문양칼, 쪽가위

칼에는 재단칼과 문양칼이 있다. 재단칼은 백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이고, 문양칼은 문양을 오려내기 위한 칼이다. 문양칼의 모양은 일반 칼과 비교해서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칼을 사용할 때는 밑에 커팅매트를 깔고 사용한다. 가위는 쪽가위를 주로 사용한다. 쪽가위는 핀셋모양으로 생긴 가위이다.

- ⇒ {문양칼로} 그 문양을 오려내는 거지요.
- ⇒ 여기서 쓰는 건 {쪽가위를} 쓰긴 해요.
- ⇒ 하드보드지 있어야 하구 {커팅메트}가 필요하죠.
- ⇒ 요런 거는 {재단칼}이구요.



[사진 29] 문양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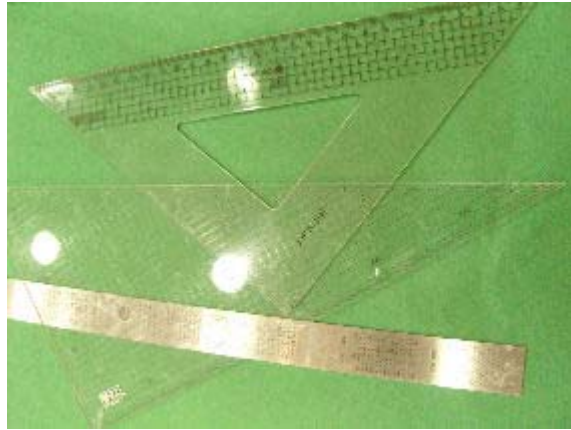


[사진 30] 재단칼

2.3.2. 자

전지 공예는 백골의 이음새를 맞춰야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문양을 오려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자를 이용한다. 15 Cm, 30 Cm, 60 Cm, 1m 자 등 다양한 자를 활용한다. 쇠로 만든 쇠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 ⇒ {쇠자도} 십오센티자 삼십센치자 육십센치자 일미터자까지 필요해요.



[사진 31] 자

2.3.3 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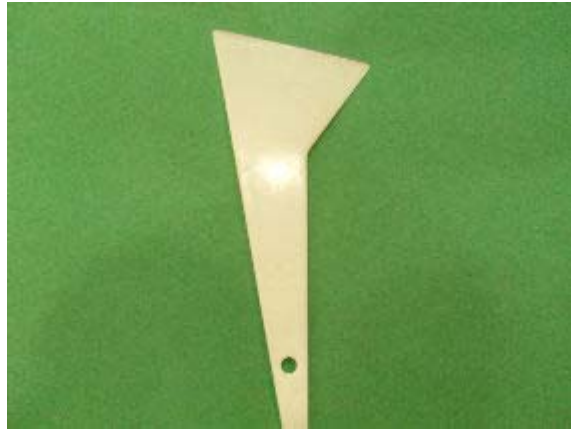
전지 공예에서 붓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우선 풀칠을 할 때 사용하고, 백골에 종이가 잘 부착되도록 하도록 손질할 때도 사용한다.



[사진 32] 붓

2.3.4. 헤라

전지 공예에서 헤라는 최근에 편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이다. 백골과 종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주거나, 종이에 난 보풀(버푸래기)을 잠재우는 도구이다.



[사진 33] 헤라

2.4. 전지 공예의 제작과정

전지 공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지 공예 제작과정	
백골만들기	목골로도 하기도 하구. 그 골격을 목골을 나무로도 하구, 하드보드지, 두꺼운 하드보드지로도 하구
초배지 붙이기	그러는데 골격을 만들으면은 우선 초배지를 하지요.
밑바탕 색 정하기	초배지로 초배를 바른 다음에 자기가 색을 정해서 밑바탕 색을 먼저 하지요.
색한지 붙이기	색한지 붙일 때는 인제 중간 정도지, 되직하다고 할 수 없어요.
물풀칠하기	붓이 잘 나갈 정도의 농도로 하고 저렇게 다 만들었으면 물풀을 한다고 물풀을 한 세 번 정도 해서
말리기	그렇게 빠짝 안 말라도 해도 되니깐.
마감재	마감재로는 인제 전통으로는 우리가 동백기름, 호두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쓰는데,
문 양	
몇 합으로 할지 정하기	어떤 문양을 정하면은 그 문양을 이합으로 할 건지 삼합으로 할 건지 정해서, 아니면은 홑겹으로 팔 꺾지 정해서 문양을 만들죠.
문양의 뽀(본) 놓고 문양파기	칼 바짝 안 세우면. 끊어먹으면 다시 하라고 그러셔요. 칼이 이 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파는 거잖아요.
배접하기	그 다음에는 인제 배접을 해요. 이쁘게 색깔을 넣어서 저렇게 밑에 색을 넣어 주는 거예요.
문양붙이기	그렇게 해서 문양을 붙이는 거죠.

제작과정에 쓰인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1. 백골 만들기

1) 칼선 넣다, 칼집 넣다, 반칼, 온칼

전지 공예의 뼈대가 되는 백골을 만든다. 요즘에 하드보드지로 제작되어 나오는 뼈대를 주로 많이 이용하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에는 백골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제작된 백골도 선에 따라 칼집을 넣으면서 접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칼집을 넣을 때 완전히 오리지 않고 반만 살짝 칼자국을 내면 두꺼운 백골도 잘 접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칼선을 넣다’, ‘칼집을 넣다’ 라 표현하기도 하고 칼로 오리는 것을 ‘넣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자체를 ‘반칼’이라고 하기도 한다.

- ⇒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접으려고 할 때는 한 번 {칼집을} 넣잖아요.
- ⇒ 이제 반만 칼집을 넣는다 그래서 {반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 여기 {온칼을} 넣어서 여기 다 찢르잖아요.
- ⇒ 반칼을 넣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칼선을} {넣는다}.



[사진 34] 칼선넣기

2) 사선치다, 모따다

백골을 만들 때의 기법으로 사선치기가 있다. 사선치기는 하드보드지의 이음새가 서로 각져 있어서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할 때 이음새의 단면을 사선으로 정리해서 이음새를 맞추는 기법이다. 이를 모따기라고도 하고, 줄여서 모딱이라고도 한다.

- ⇒ {사선치기}, {모따기는} 같은 건데 말은 두 가지로 써요.



[사진 35] 사선치다



[사진 36] 사선치다



[사진 37] 사선치다 전



[사진 38] 사선치다 후

2.4.2. 초배 치다

초배는 완성된 백골에 초별로 한지를 바르는 것이다. 도배를 할 때와 동일하다. 이때 바르는 한지를 초배지라고 한다. 초배를 바르는 것을 초배치다라고 표현한다. ‘치다’는 전지 공예에서 초배지뿐만 아니라 색한지를 풀로 바르는 것도 포함한다.

- ⇒ 골격을 만들면 우선 {초배지를} 하지요.
- ⇒ 초배지로 {초배를} 바른 다음에 자기가 색을 정해서 밀비탕 색을 먼저 하지요.
- ⇒ 나무를 짜서 거기다가 이제 뭐 기초작업을 하고 초배를 {치고} 또 색지 {치고} 했거든요.



[사진 39] 초배치다

2.4.3. 색한지 치다

백골에 초배를 치고 나면 바탕색이 되는 색한지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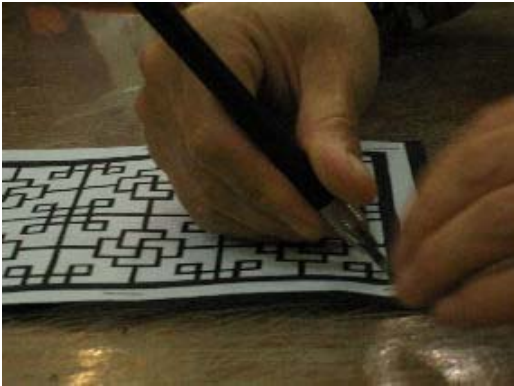


[사진 40] 색한지치기

2.4.4. 합지해서 문양따다, 빠지다

백골에 초배치고, 색한지 친 곳에 붙일 문양을 선택해서 문양칼로 다양한 문양을 오리게 된다. 이때 문양이 있는 본을 색한지에 임시로 부착해서 본과 함께 오린다. 이 때 사용하는 색한지는 합지를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문양을 오리는 것을 ‘따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동그란 문양을 오릴 때는 동그란 문양을 그대로 오리다 보면 오히려 오리기가 어려운데, ‘빠지다’는 원형문양을 잘 따는 방법으로 빠진 데서 시작해서 또 빠지는 방법을 쓴다. <표준>에서 빠지다를 「1」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합지도 몇 번 합지하느냐에 따라 이합, 삼합서부터 십오합이라고 하는데 문양에 따라 몇 번 합지를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 ⇒ 그 다음 돌려놓고 그 {빠진} 데서 시작해서 또 {빠지고} 인제 이러면 뚱그랴게 되더라구.
- ⇒ 보통 칠합서부터 {십오합까지도} 해요.
- ⇒ 한지를 가지고 문양을 파고 또 두꺼운 문양이 필요하면 {합지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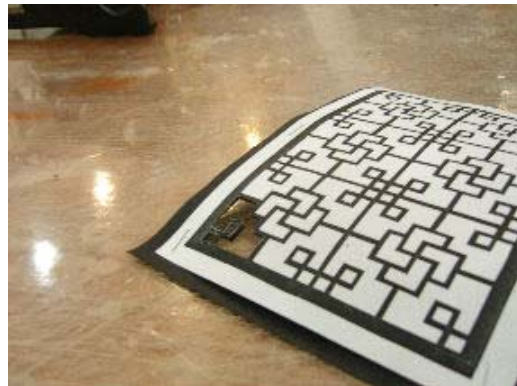
[사진 41] 문양 따다 1



[사진 42] 문양 따다 2



[사진 43] 문양 따다 3



[사진 44] 문양 따다 4

2.4.5. 배접하기

배접하기는 오래낸 문양 뒤에 색지를 덧대는 것을 일컫는다. 배접은 전체적으로 배접하는 것과 부분배접으로 나눌 수 있다.

- ⇒ 밑에 색을 대는 거를 {배접이라고} 하거든요.

1) 전체배접

전체배접은 오래낸 문양의 뒤에 다시 새로운 색한지를 뒤에 대고 1mm 정도 밖으로 오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일미리따기라고 한다.

⇒ 이 문양이 {일미리따기} 필요하다 그러면 문양보다 일 미리 밖으로 배접을 해서 오리는 기법도 있기는 있어요.



[사진 45] 일미리따기

2) 부분배접

부분배접은 오려낸 문양의 뒤에 부분 부분으로 적당한 색한지를 선택해서 문양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색한지를 오려 덧붙이기하는 것이다.

⇒ 이거는 전체적인 배접이고 그 담에 이런 거는 {부분배접이라} 그래.



[사진 46] 부분배접(앞장)



[사진 47] 부분배접(뒷장)



[사진 48] 전체배접 1



[사진 49] 전체배접 2

3) 양각기법, 음각기법

또한 문양이 도드라지게 표현하느냐, 문양이 들어가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양각기법과 음각기법으로 나뉜다. 음각은 <표준>에서 조각이나,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안으로 들어가게 새기는 일. 또는 그런 조각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양각은 그 반대로 문양이 돌아 보이게 합지를 하는 것이다.

- ⇒ {양각이라는} 거는 문양이 면보다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요.
- ⇒ 이렇게 파내고 밑에 배접하고 하는 거는 {음각이에요}.



[사진 50] 양각기법



[사진 51] 음각기법

2.4.6. 문양 붙이기

배접을 끝낸 문양을 초배, 색한지를 바른 백골에 위치를 잡아 붙인다.

2.4.7. 물풀칠, 물풀

문양을 다 붙이고 나면 제품의 광택을 위해 풀칠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풀은 붓이 잘 나갈 정도의 농도로 제품 전체에 풀칠을 한다. 이를 물풀칠, 줄여서 물풀이라고 한다. 풀칠을 하고 말리고 나서 다시 풀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한다. 보통 세 번 정도하게 된다. 물풀칠을 하는 이유는 버푸래기(보풀)을 잠재워 주고 제품에 광택을 주기 위해서이다.

- ⇒ {버푸래기}도 잠재워 주고 광택도 주고 그래서 작품이 다 된 다음에는 {물풀} 먼저 해요.

2.4.8. 감칠, 옷칠, 호두기름, 동백기름

물풀칠을 마치고 마감재를 칠하게 되는데 화학제품의 마감재를 주로 사용하지만, 전통

마감재로 호두기름, 들기름, 동백기름을 마감재로 이용하거나, 감칠, 옷칠을 하기도 한다.

- ⇒ 마감재로는 인제 전통으로는 우리가 {동백기름}, {호두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써요.
- ⇒ {옷칠은} 물에 집어넣도 돼요.

2.5. 전지 공예품

한지 공예로 만들어지는 여성생활용품으로 반짚고리, 소경대, 좌경대, 빗집, 머릿장, 화초장, 이층장, 송송이반단이, 의결이장, 예단함을 들 수 있고, 남성생활용품으로 관복함, 지갓, 갓집, 선비상, 고비 등을 들 수 있다.

- ⇒ {이층장이라고} 그래요.
- ⇒ 이런 종류는 {화초장이라고} 그런다.
- ⇒ {송송이반단}할 때는 보통 칠합서부터 십오합까지도 해요.
- ⇒ 큰 거는 뭐 저기 있는 빗집, {반짚고리}, 구절판, {소경대}예요.
- ⇒ 저한테 있는 거는 {한복함}도 있구요. {관복함}도 있구요. 갓집도 있구요.
- ⇒ 작은 거는 소경대라고 했는데 {좌경대} 중에서도 작은 거는 소경대라고 해요.



[사진 52] 관복함(겉)



[사진 53] 관복함(안)

2.5.1. 빗집

빗집은 <표준>에서 빗, 빗솔과 같이 머리를 빗는 데 쓰는 물건을 넣어 두는 물건이다. 흔히 창호지 따위를 여러 겹 붙여 기름에 곁어서 만든 것과 나무로 짜서 만든 것이 있다.

- ⇒ {빗집이라든지} 패물상자리든지 이런 거는 여인들이 썼던 거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만들구.



[사진 54] 빗접

2.5.2. 머릿장

머릿장은 옛날에 여인네들이 머리카락에 두고 버선 등의 간단한 것을 넣어두는 장을 일컫는다. 승승이반단이는 구멍이 뚫린 경첩 문양을 붙여서 만든 반단이다. 의걸이장은 위는 옷을 걸 수 있고, 아래는 반단으로 된 장을 일컫는다. 예단함은 예단을 넣는 큰 상자이다.

- ⇒ 옛날에 여인네들이 머리맡에 두고 버선도 넣고 해서 {머릿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 ⇒ {의걸이장} 같은 거.
- ⇒ 사주단지 보낼 때 사주나 패물이나 뭐 의류 종류를 넣을 수 있는 {예단함}이 있다.

2.5.3. 지갓

지갓은 종이로 만든 갓으로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갓집은 갓을 넣어두는 갓 모양의 상자이고 선비상은 옛날 선비들이 쓰던 서안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 ⇒ 원래 {지갓은} 안이 화려해요.
- ⇒ 저한테 있는 거는 한복함도 있고요. 관복함도 있고요. {갓집도} 있고요.
- ⇒ 그건 이제 {선비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사진 55] 갓집(안)



[사진 56] 갓집(겉)

2.5.4. 고비

고비는 <표준>에 편지 따위를 꽂아 두는 물건이라고 하였다. 종이 따위로 주머니나 상자처럼 만들거나 종이를 ‘+’ 자나 ‘x’ 자 모양으로 오려서 벽에 붙인다고 하였다.

⇒ {고비라고} 얘길하죠.

2.5.5. 정접시, 구절판

그릇의 종류로 정접시, 구절판, 과반 등을 들 수 있다. 정접시는 정사각형의 접시를 일컫는다. 구절판은 구절판을 담는 찬합을 일컫는다.

⇒ {정접시라} 그러면 요런 건데요. 요거 만드는 건 하루에 다 만들어요.

⇒ 큰 거는 뭐 저기 있는 빗집, 반진고리, {구절판}, 소경대예요.



[사진 57] 구절판



[사진 58] 구절판

2.5.6. 사각과반, 육각과반, 팔각과반

과반은 과실류를 담는 쟁반을 일컫는다. 과반은 모양에 따라 사각과반, 육각과반, 팔각과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줄여서 사과반, 육과반, 팔과반이라고도 한다.

⇒ {과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자그릇 같은 거.

⇒ 사람에 따라서 {사각과반}, {육각과반}, {팔각과반}, 그 각을 따지면 그렇구요.

⇒ 제 형태에 따라서 {육과반}, 팔각과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떡도 담아낼 수 있고 과자도 담아낼 수 있었어요.

⇒ 유물에 보이면 거진 육과반하고 {팔과반을} 많이 했어요.

2.5.7. 오방색상자, 육각태극함, 팔각태극함

상자로는 오방색상자, 육각태극함, 팔각태극함 등이 있다. 오방색상자는 다섯 가지 색깔을 붙인 전통상자이고, 육각태극함은 육각형에 태극문양이 있는 상자이다. 팔각태극함은 팔각형에 태극문양이 있는 상자이다.

- ⇒ 빨강, 청색, 노랑, 초록, 까망 이게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 ⇒ {오방색상자}예요. 다섯가지 색이 들어갔잖아요.
- ⇒ 요거는 저희가 지금 {육각태극함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사진 59] 오방색 상자



[사진 60] 육각태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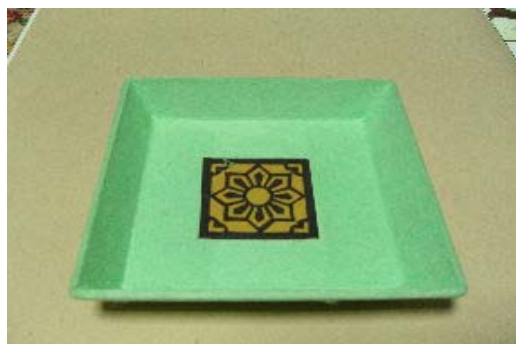
[사진 61] 팔각 태극함(윗면)



[사진 62] 팔각태극함(측면)



[사진 63] 사각과반, 사과반 1



[사진 64] 사각과반, 사과반 2

3. 지승 공예

3.1. 지승 공예의 구성

3.1.1 지승실

지승에서 가로 방향으로 놓인 끈을 씨줄이라고 하고 세로로 놓인 끈을 날줄이라고 한다. 이는 옷감을 직조할 때 실을 일컫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 ⇒ {날줄}, {씨줄} 이렇게 얘기를 해요.
- ⇒ 끈사라고 하지 않고 {지승실이라고} 그냥 얘기 해요.



[사진 65] 지승끈, 지승실, 지승

지승실에서 한 가닥의 지승을 홑줄이라고 하고, 두 개를 비벼 끈 것을 겹줄이라고 한다. 두 제보자 간에 홑줄과 겹줄을 만드는 방법이 달랐다. 김원자 제보자는 한줄씩 사선으로 비벼서 만든 지승실을 다시 두 가닥으로 머리 땅듯 엮어서 겹줄을 만든다.

- ⇒ 또로로 말아가지구 이렇게 요거 짜는 걸 보고 {홑줄이라고} 그래요.
- ⇒ 두 개는 {겹줄이에요}.

3.1.2 뽐(본)

지승실을 엮어갈 때 기본이 되는 틀이다.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도자기 등을 이용한다. 그러나 지승 공예하는 방법에 따라 뽐 없이 하기도 한다. 장성우 제보자는 뽐 없이 지승 공예를 하고, 김원자 제보자는 뽐을 사용하여 지승 공예를 한다.

3.2. 지승 공예의 재료

3.2.1. 한지

지승 공예의 재료는 한지뿐이다. 자투리 한지를 말거나, 엮어서 지승 공예에 필요한 지승끈 또는 지승실을 만든다. 원래 지승 공예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 자투리 종이들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쓴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두를 치다’라는 표현은 책을 엮고 책의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자르는 것이다. 이 때 나온 책의 가장자리를 꼬아서 지승실을 만드는 것이다.

⇒ 이걸 이제 자기가 여기서 반듯하게 잘라주는 걸 이제 {서두를 친다} 그래요.



[사진 66] 한지

3.3. 지승 공예의 도구

3.3.1. 가위

지승 공예에는 가위나, 쪽가위 외에 특별한 도구가 없다. 주로 손을 이용해서 한지를 꼬거나 말아서 지승끈을 만들고, 이 지승끈을 엮어서 원하는 물건을 만든다.

3.3.2. 물 스펀지

물 스펀지는 지승끈을 만들 때, 물을 살짝 묻혀서 말 때 사용한다. 물 스펀지는 두 제보자 중 김원자 제보자만 사용했고, 장성우 제보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승끈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 67] 물 스펀지

3.4. 지승 공예의 제작과정

3.4.1. 지승실 꼬기

지승실을 꼬는 것을 비비다라고 한다. 장성우 제보자는 두 개의 한지를 양 손으로 비비면서 동시에 꼬는데, 새끼줄을 꼬는 방법으로 한다. 합사시키다라고 하는데 지승 공예에서 두 개의 끈을 같이 꼬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겹줄을 만들고, 홑줄을 사용할 때에는 풀러서 사용한다. 끈사는 지승 공예에서 두 개의 종이끈을 꼬아서 만든 끈이다. 김원자 제보자는 홑줄을 먼저 만들고 홑줄 두 개를 엮어서 겹줄을 만든다. <표준>에서는 끈사를 명주실을 꼬아 만든 실이라고 제한하였다. 끈사는 지승 공예에서 꼬았던 끈을 한 개로 풀어 놓은 끈이다. <표준>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치를 킨 그대로 꼬지 아니한 명주실이라고 하였다. 지승 공예에서는 실을 비유적으로 밥이라고 한다. 또한 뼈대는 지승 공예에서 날줄이 힘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 이게 {비비지는} 거잖아요.
- ⇒ 실하고 같이 표현 해 주면 {합사시킨다고} 얘기 해 줘요.
- ⇒ 힘을 받쳐주는 {뼈대예요.}
- ⇒ {끈사}, 끈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진 68] 한지 물 묻히기



[사진 69] 한지 말기-흫줄 만들기



[사진 70] 비비다-장성우 제보자 방식



[사진 71] 한지 말기-겹줄

3.4.2. 고리 만들기

지승을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네 개의 끈이 서로 풀리지 않게 손 가마 엮듯이 엮는데 이를 고리라고 한다. 고리를 서로 지게 한 다음에는 서로 풀리지 않게 사이를 촘촘히 좁힌다.



[사진 72] 고리 만들기

3.4.3. 씨줄넣기, 씨줄빼기

씨줄넣기는 지호 공예에서 면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실을 더 넣는 것이다. 씨줄빼기는 지호 공예에서 면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실을 빼는 것이다.



[사진 73] 씨줄넣기 1



[사진 74] 씨줄넣기 2

3.4.4. 염색하기

물건을 다 만들고 나면 감물이나 옷칠을 한다. 또한, 쑥물, 쪽물, 양파염색 등 천연염색도 있고 인공염색을 하기도 한다. 감물은 팔월 정도에 사람들이 먹으면 뿔다는 땡감들이 있다. 땡감을 반을 쪼개서 흠집을 낸 후 물에다 삭혀놓으면 거기서 그 안에 젤라틴이라는 성분이 나온다. 이 젤라틴성분이 코팅해 주는 작용을 해 준다고 한다. 또 물건을 안정감 있게 딱딱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 ⇒ 주로 저는 옷칠이나 {감물로} 해요.
- ⇒ {양파껍질} 삶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땐 또 {쪽물도} 입히구, {쑥물도} 입히구.



[사진 75] 감물



[사진 76] 감물 들이기 1



[사진 77] 감물 들이기 2



[사진 78] 감물 들이기 3

3.5. 지승 공예품

지승 공예로 만드는 물건에는 동구리, 요로, 지승옷, 조족등 등이 있다. 동구리는 <표준>에서 대나무 줄기나 버들가지를 촘촘히 엮어서 만든 상자라고 하였다. 음식을 담아 나를 때 쓰며, 아래위 두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요로는 전통 혼례 때 신부가 탄 가마에 넣어 둔 소변 보는 통이다. 지승옷은 지승으로 엮어 만든 옷이다. 가볍고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조족등은 밤길 갈 때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 ⇒ {동구리는} 이제 잡다한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통이에요.
- ⇒ 시집 갈 때 엄마가 {요로를} 가마에 넣어 줘요.
- ⇒ {지승옷도} 만들었어요.
- ⇒ {조족등} 할 때 옷이 많이 올랐어요.



[사진 79] 옷칠한 유골함



[사진 80] 감물 들인 조족등

4. 지호 공예

4.1. 지호 공예의 구성

4.1.1. 틀

틀은 지호 공예에서 만들려고 하는 물건이나 물건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것이다. 틀을 만드는 방법에는 도자기와 같은 기존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 나무로 깎아 틀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의 기본을 잡는 방법 등이 있다.

4.1.2. 본

본은 틀에 종이죽을 일차적으로 붙여서 만든 기본 뼈대이다.



[사진 81] 본

4.1.3. 문양

지호 공예에서 호두문양이 있다. 호두문양은 지호 공예의 문양으로, 호두껍질 같은 효과를 주는 기법이다.

⇒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이면서 {호두문양처럼} 이렇게 우물두물하게 더 붙이는 거예요.



[사진 82] 호두문양

4.2. 지호 공예의 재료

4.2.1. 닥죽, 한지죽, 종이죽

닥죽은 한지죽, 종이죽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지호 공예의 재료이다. 지호 공예에서 한지를 물에 불려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종이죽이다.

지호 공예의 부재료로 한지죽에 섞는 재료에 여러 가지가 있다. 황토, 갯벌, 숯가루, 삼찌꺼기, 황촉풀, 우뭇가사리, 찹쌀풀, 밀가루풀, 유황, 송진 등을 섞어서 쓴다. 황촉풀은 황촉규의 잘못된 형태이다. 황촉규는 한지를 만들 때 쓰는 한지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닥풀이다. 우뭇가사리도 종이죽의 점성을 위해 끓여서 섞어 넣는 재료이다.

- ⇒ {송진도} 인제 벌레먹지 말라고 써요.
- ⇒ {숯가루도} 쓰구요.
- ⇒ 그 담에는 인제 {황토도} 쓰고, 한지하고 섞어서 써요.
- ⇒ 그 담에 {삼찌꺼기라고} 그래가지구 왜 삼베 만드는 삼 있잖아요.
- ⇒ {황촉풀이라구} 닥풀이에요.
- ⇒ 인제 {닥죽}이라고 그래서 {한지죽}을 {닥죽}이라고 그러거든요.
- ⇒ 틀을 그런 거로 잡아서 {종이죽}을 붙이는 거예요.

4.2.2. 삼베천

삼베천은 삼실로 짠 천이다. 지호 공예에서 삼베천은 틀에다 종이죽을 붙여서 본을 만

들고 난 후에 두 번째 종이죽을 덧붙여 모양을 잡게 되는데, 이때 본 위에 삼베천을 조각을 내서 붙인다. 삼베천을 붙이면, 종이죽이 본에 더 잘 붙게 하고, 본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준다.

⇒ 인제 작품을 튼튼하게 하느라고 틀 잡은 다음에 {삼베천으로} 한 번 싸요.

4.2.3. 접착제

지호 공예에서 접착제는 틀에 종이죽을 붙여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본을 만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그 중간을 칼로 자르고 틀을 꺼낸다. 접착제는 이 때 반으로 자른 본을 다시 붙이는 부재료이다.



[사진 83] 접착제

4.3. 지호 공예의 도구

4.3.1. 사포

지호 공예에서 사포는 종이죽을 틀에 붙이고 그 표면을 고르게 하거나, 색칠을 하고, 물건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 대충 틀을 잡아 가지구 보충하면서 {사포를} 하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4.4. 지호 공예의 제작과정

4.4.1. 종이죽 만들기

한지죽을 종이죽이라고 하는데, 한지를 물에 불려서 황토, 깻벌, 황촉풀, 우뚝가사리, 찹

쌀풀 등 부재료를 섞어서 만든다. 이렇게 반죽한 종이죽을 짐통에 넣어서 한번 짜 낸다. 짐통에 짜낸 종이죽을 절구에 넣고 짙는다. 지룩하다는 반죽이 조금 질다는 뜻이다.

- ⇒ 주머니에다가 날콩가루를 넣어가지구 날콩가루 물에 개서 {지룩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 ⇒ 그 담에 {갯벌도} 쓰구요.
- ⇒ 인제 점성을 좋아지게 하느라고 {우뭇가사리} 풀도 쓰구요.
- ⇒ {참쌀풀}, 밀가루풀도 쓰구요.

4.4.2. 뽕(본) 만들기

만들려고 하는 모양과 유사한 틀에 종이죽을 붙여서 본을 만든다. 본이 어느 정도 마르면 반으로 갈라서 도자기 등의 틀을 꺼내고 반으로 갈랐던 본을 다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인다.

4.4.3. 삼베천 붙이기

본을 만들고 난 후에 본 위에 삼베천을 붙인다. 이는 본에 보충할 한지죽이 잘 붙어있게 하는 효과와 지호의 모양을 잡아주는 효과를 준다.



[사진 84] 삼베천

4.4.4. 한지죽 붙이기

삼베천을 붙이고 나면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한지죽을 붙인다. 엄지손가락으로 꺾꺾 눌러서 붙인다.

4.4.5. 건조하기

한지죽을 붙이고 나면 말린다.

4.4.6. 보충하기

건조시키면 지호의 표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종이죽으로 메꿔야 한다. 이를 보충한다고 한다.

⇒ {보충을} 하고 메꿨어도 들어가고 나간 데가 있단 말예요.

4.4.7. 사포질

지호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한다. 색칠을 하기 전후에 하게 된다. 색칠을 하기 전은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색칠 후에 사포는 다른 색깔을 내기 위한 기법이다.

4.4.8. 색칠하기

사포질을 하고 나면 원하는 색칠을 칠하게 된다.



[사진 85] 색칠하고 사포질을 반복해서 나온 지호(뒤쪽 것)

4.4.9. 콩땀하기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는 사포하고 콩땀을 한다. 콩땀은 공예품 따위에 주머니에 물에 갠 날콩가루를 넣고 두들겨서 메꾸는 것이다. 콩땀을 콩물을 들인다고 한다. 콩땀을 하면 색깔이 놀놀해진다는 놀놀하다는 것은 노르스름해지다는 뜻이다.

- ⇒ 색을 추가하고 그다음에는 사포하고 {콩땀을} 해요.
- ⇒ 사포한 다음에 콩가루로 {콩물을} 입혀요.
- ⇒ 지금보다는 조금 색이 {놀놀해져요.}
- ⇒ 주머니에다가 {날콩가루를} 넣어가지구 {날콩가루}, 물에 개서 지룩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에 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4.4.10. 마감재

마감재로 황칠은 제주도에서 나는 누런 빛깔의 칠이다. 황칠나무의 진으로 만든다. 또 다른 마감재로는 느릅나무뿌리를 삶아서 바른다. 옷칠도 한다.

- ⇒ 전통 {마감재} 같은 거, 들기름, 동백기름, 호두기름 이런 거는 짙게는 열흘에서 십오일, 이십일 까지 말라야 돼요.
- ⇒ 그 다음 마감재로는 {느릅나무뿌리를} 삶아서 벌레 먹지 말라고 해요.
- ⇒ {황칠이라고} 황색 나는 칠이있는데, 옷칠보다도 값이 비싸요.

지금까지 살펴본 지호 공예의 제작과정은 제보자의 구술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호 공예		
한지죽 만들기	한지죽 쑤기	그냥 한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지.
	찌기	한지죽을 만들 때 한 번 찌요, 찜통에다가 찌요.
	짚기	찌가지구 한 김 나간 다음 절구에다가 짚요. 짚어요. 짚는 거 절구질 한다고 그러죠. 짚어서, 짚는 거는 섞이게도 하지만 점성을 높혀주는 거예요.
뽀 갈르기	이렇게 만들어낸 데다가 만들어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팔십프로 정도 말랐을 때 반 갈라서 안에를 빼 내요.	
뽀 합치기	빼내고 합쳐요. 합쳐서 고무줄로 붙들어 매놔서 애가 붙게 좀 놔둬, 하루정도 놔뒀다가. 그렇지요. 풀칠을 해줘요. 단면에다, 뽀 만들 때 반 갈라서 애를 끄내고 합쳐요. 합칠 때는 인제 요기 자세히 보면 요렇게 칼로 잘라낸 자국이 보이잖아요.	
베쪼각 붙이기	베쪼각(조각)이죠, 베쪼각으로 빼곡하게 빈틈 없이 다 바릅니다. 전체를.	
한지죽 바르기	베 붙이고는 바로 한지죽 발라도 상관없어요. 말리지 않아도 돼요.	
말려서 사포질 하기 보충하기	사포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데가 있으면 보충해 주고,	
색 추가하고 사포하고	색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포하고	
콩땀을 해요	콩땀을 해요. 머니에다가 날콩가루를 넣어가지구 날콩가루 물에 개서, 지룩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콩물을 입히는 거예요.	
색이 들어가요	콩땀이 끝나면은 사포질 또 안하고 콩땀 다음에 색이 들어가요.	

지호 공예	
빼짝 마른 다음 사포질하기 칠하기 빼짝 말려요	고런 색을 인제 차례대로 바르면, 바르고 말른 다음에 빼짝 마른 다음에 사포질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보여요. 제일 처음에 인제 노랑을 칠하고, 까만색 칠하고, 찌꾸색 칠하고, 고 위에다 밤색 한번 더 칠하고. 그래서 빼짝 말려요.
바싹 마르고 사포하기	바싹 마른 다음에 사포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와요.

4.5. 지호 공예의 완성품

지호 공예로 만든 것에는 동물류, 생활용품, 탈, 인형 등을 들 수 있다. 동물류는 길한 의미를 상징하는 동물류들을 주로 만든다. 생활용품은 그릇류를 비롯해서 다양하다.



[사진 86] 두꺼비



[사진 87] 오리



[사진 88] 하회탈



[사진 89] 각시탈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한지 공예는 우리의 전통적인 제지술로 만들어진 한지를 이용해서 생활용품, 장식품 등 다양한 형태의 공예품을 만드는 공예의 한 방법이다. 전지 공예는 한지 공예의 한 종류로, 하드보드지나 나무로 된 백골에 오색 한지를 오려 붙여서 마감재를 칠해서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만드는 일이다. 전지 공예에서 색지의 색깔을 탈색시켜서 만드는 기법의 공예를 탈색공예라고 한다.

지승 공예는 한지 또는 다른 종이를 꼬아서 만든 끈을 엮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다. 것이다.

지호 공예는 한지를 물에 불려서 여러 가지 부재료를 섞어 함지박, 화병, 탈 등을 한지를 이용한 공예이다.

지화 공예는 한지로 만든 꽃이나 한지 꽃을 만드는 일이다. 주로 무속의식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지화(紙畵)공예는 한지 위에 그린 그림이나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이 중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전지 공예와 지승 공예, 지호 공예의 어휘 조사를 하게 되었다.

전지공은 목골, 골격이라고 불리는 백골, 문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골은 전지 공예의 뼈대가 되는 틀이다. 문양의 종류에는 전통문양, 동물문양, 응용문양, 문자문양, 기하문양 등을 들 수 있다. 전통문양의 대표적인 것으로 태극문양을 들 수 있는데 삼태극, 사태극, 오태극 등으로 나눈다. 오태극은 오방색으로 구성된 태극문양이다.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는 귀문양도 있다. 귀는 모서리를 일컫는 말이다.

전지 공예를 포함한 한지 공예의 주재료는 한지이다. 전지 공예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특징을 지닌 색한지를 오리고 붙여서 만드는 공예이다. 한지를 두 장 이상 겹쳐서 겹지를 만들어 사용한다. 겹지의 장수에 의해 이합지, 삼합지, 사합지 등이 있다.

전지 공예의 도구도 특별한 것은 없다. 재단칼, 문양칼, 쪽가위, 자, 붓, 헤라 등이다. 재단칼은 백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이고, 문양칼은 문양을 오려내기 위한 칼이다. 문양칼의 모양은 일반 칼과 비교해서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전지 공예는 백골의 이음새를 맞춰야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문양을 오려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자를 이용한다. 전지 공예에서 붓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우선 풀칠을 할 때 사용하고, 백골에 종이가 잘 부착되도록 하도록 손질할 때도 사용한다. 헤라는 최근에 편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이다. 백골과 종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주거나, 종이에 난 보풀(버

푸래기)을 잠재우는 도구이다.

전지 공예의 제작과정은 우선 백골 만들기(칼선넣기, 사선치기)→초배 치기→색한지 치기→합지해서 문양 따기→배접하기→문양붙이기→물풀칠하기→마감재(호두기름 등, 감칠, 옷칠) 순이다.

전지 공예 방법으로 만드는 공예품은 다양하다. 반진고리, 소경대, 좌경대, 빗집, 머릿장, 화초장, 이층장, 승승이반달이, 의결이장, 예단함, 관복함, 지갓, 갓집, 선비상, 고비 등을 들 수 있다.

한지 공예의 또다른 방법인 지승 공예가 있다. 지승 공예는 한지를 새끼 꼬듯 만든 지승끈을 엮어서 만드는 공예방법이다. 지승에서 가로 방향으로 놓인 끈을 씨줄이라고 하고 세로로 놓인 끈을 날줄이라고 한다. 지승실에서 한 가닥의 지승을 흘줄이라고 하고, 두 개를 비벼 꼰 것을 겹줄이라고 한다. 두 제보자 간에 흘줄과 겹줄을 만드는 방법이 달랐다. 지승실을 엮어갈 때 기본이 되는 틀이다.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도자기 등을 이용한다. 그러나 지승 공예하는 방법에 따라 뿐 없이 하기도 한다. 장성우 제보자는 뿐 없이 지승 공예를 하고, 김원자 제보자는 뿐을 사용하여 지승 공예를 한다.

지승 공예의 재료도 한지뿐이다. 자투리 한지를 말거나, 엮어서 지승 공예에 필요한 지승끈 또는 지승실을 만든다. 지승 공예의 도구도 간단하다. 지승 공예는 가위나 쪽가위 외에 특별한 도구가 없다. 물 스펀지는 지승끈을 만들 때, 물을 살짝 묻혀서 말 때 사용한다. 물 스펀지는 두 제보자 중 김원자 제보자만 사용했고, 장성우 제보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승 공예의 제작과정은 지승실 꼬기(비비기)→고리만들기→엮기→씨줄넣기, 씨줄빼기→염색하기(옷칠, 감물) 순이다. 지승 공예로 만드는 물건에는 동구리, 요로, 지승옷, 조죽 등 등이 있다.

지호 공예는 틀, 본, 문양으로 구성된다. 틀은 지호 공예에서 만들려고 하는 물건이나 물건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것이다. 틀을 만드는 방법에는 도자기와 같은 기존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 나무로 깎아 틀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의 기본을 잡는 방법 등이 있다. 본은 틀에 종이죽을 일차적으로 붙여서 만든 기본 뼈대이다. 지호 공예에서 호두문양이 있다. 호두문양은 지호 공예의 문양으로, 호두껍질 같은 효과를 주는 기법이다.

지호 공예의 재료는 한지로 만든 닥죽, 한지죽, 종이죽이다. 이 외에 부재료로 황토, 깻벌, 숯가루, 삼찌꺼기, 황촉풀, 우뭇가사리, 찹쌀풀, 밀가루풀, 유황, 송진 등을 섞어서 쓴다. 삼베천은 삼실로 짠 천이다. 지호 공예에서 삼베천은 틀에다 종이죽을 붙여서 본을 만들고 난 후에 두 번째 종이죽을 덧붙여 모양을 잡게 되는데, 이때 본 위에 삼베천을 조각을 내서 붙인다. 삼베천을 붙이면, 종이죽이 본에 더 잘 붙게 하고, 본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준다.

지호 공예에서 접착제는 틀에 종이죽을 붙여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본을 만드는데, 이것

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그 중간을 칼로 자르고 틀을 꺼낸다. 접착제는 이 때 반으로 자른 본을 다시 붙이는 부재료이다.

지승 공예의 도구에는 특별한 도구는 없다. 지호 공예에서 사포는 종이죽을 틀에 붙이고 그 표면을 고르게 하거나, 색칠을 하고, 물건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지호 공예의 제작과정은 종이죽 만들기→본 만들기→삼베천 붙이기→한지죽 붙이기→건조하기→보충하기→사포질→색칠하기→콩땀하기→마감재 순이다.

지호 공예로 만든 것에는 동물류, 생활용품, 탈, 인형 등을 들 수 있다. 동물류는 길한 의미를 상징하는 동물류들을 주로 만든다. 생활용품은 그릇 류를 비롯해서 다양하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신유. 1995.
- 김 경. 종이박물관. 김영사. 2007.
- 김삼기. 한지장. 민속원. 2006.
- 김삼기·정홍진·이종철, 문방사우조사보고서-지·필·묵·연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 1992.
- 김순철. 종이의 이야기. 월간포장산업. 1992.
- 김영현. 한지의 발자취. 원주시. 2005.
- 김영호, “한지 공예의 변천과정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68.
- 김재희, “한지제지에 관한 고찰”, 연세어문학, 제6집, 1975.
- 심화숙. 전통한지 공예. 우리출판사. 2005.
- 이승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2002
- 이애자, “수제종이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대학원, 1988.
- 장혜정, “조선조 지공예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80.
- 전 철. 한지-역사와 제조. 원광대학교출판부. 2003.
- 한규성, “조선시대 말기 지승에 대한 고찰”,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76.
- 호세희, “우리나라 전통 종이 작업에 관한 작품제작연구-문창살 형태 소재를 중심으로”,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1988.

부 부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징	염색				갈물	명	명	덜 익은 감에서 나는 맑은 즙. 염료나 방부제로 쓴다.	주로 지는 율칠이나 {갈물로} 해요.	법정할 정도에 사람들이 익으면 물이나는 액상물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 요가서 염정을 내 가지고 율에다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젤라틴이라는 성분이 나오면요. 그게 워낙하면 코팅해 주는 작용을 해요. 주머니요. 그 성분이 제거되고 딱딱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장성우(기쁨)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로	뽀이기			감자풀	감자녹말로 쓴 풀.	명	명	감자풀도 자국이 나타리구 근데 전체적으로 썼을 때는 자국이 안 나오요.	{감자풀도} 자국이 나타리구 근데 전체적으로 썼을 때는 자국이 안 나오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갓짐	갓을 넣어 두는 상자로 갓상자라고도 한다.	명	명	저한테 있는 거는 한복함도 있고요, 관복함도 있고요. {갓짐도} 있고요.			김원지(원주)	심화숙(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로	부재료			갯벌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	명	명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	그 당에 {갯벌도} 쓰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뽀양			격자문양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무늬.	명	명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무늬.	이런 거는 다 {격자문양}, 직각 만자문양이 없어요.	<표준> '2'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구조나 물건. 또는 그런 형식.	이부욱(춘천)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고버	두루마기 편지나 문서, 그림 등의 지류를 널어 보관하는 문방가구.	명	명	두루마기 편지나 문서, 그림 등의 지류를 널어 보관하는 문방가구.	{고버라고} 얘길하죠.	<표준> 편지 따위를 쫓아 두는 물건. 종이 따위로 주머니나 상자처럼 만들어거나 종이틀, '지나', 'X' 자 모양으로 오려서 벽에 붙인다.	이부욱(춘천)	심화숙(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클럭	이름 사물이나 일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틀이나 물건거리.	명	명	이름 사물이나 일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틀이나 물건거리.	{클럭들} 만들면 우선 초배지를 하지요. {클럭들} 만들면서 하든보지도도 하구요. 무늬로도 하구요.	<표준>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틀이나 물건거리.	김원지(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과반	과일을 담은 그릇. 결혼식 때 폐백 음식을 받기도 한다. 주로 사각, 육각, 팔각으로 만들어 화려한 색과 다양한 전통 문양으로 장식한다.	명	명	과일을 담은 그릇. 결혼식 때 폐백 음식을 받기도 한다. 주로 사각, 육각, 팔각으로 만들어 화려한 색과 다양한 전통 문양으로 장식한다.	{과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자그릇 같은 거는 뭐 자기 있는 빚정, 반질고리, {구절판}, 소경대예요.	김원지(원주)	심화숙(2005)	0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구절판	어엿 모가 나도록 만든 나무 그릇.	명	명	어엿 모가 나도록 만든 나무 그릇.			김원지(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커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	명	명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	{커는} 이제 우리가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의 모서리 있잖아요. / 모서리에 여러가지 문양이 들어가는데, 그 작품에 맞는 문양을 {커에} 맞는 문양을 찾아서 합니다.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결상	문수가 풀을 조장.	명	명	문수가 풀을 조장.	결조 {결상서부턴} 그 작품에 어울리는 문양을 찾기가 골라서 싸야죠.	김원지(원주)		0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로	부재료			널롱가루	널롱을 빻은 가루.	명	명	널롱을 빻은 가루.	주머니에다가 {널롱가루를} 넣어가지구 {널롱가루}, 풀에 개서 딱딱하게 되직하게 해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징				내다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그러다	동	동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그러다	한지를 여러 겹 겹쳐서 합해서 만들어서 모양을 {내서} 파내고그다 쓰는 거예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징	과징			널다	고장되어 있던 것이 불거워 이리저리 움직인다.	동	동	고장되어 있던 것이 불거워 이리저리 움직인다.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원리가 손바닥 안에서 서는 각자가 {널구요},	김원지(원주)	심화숙(2005)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염색				느릅나무뿌리	느릅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의 뿌리.	명	명	느릅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의 뿌리.	그 다음 마감재로는 {느릅나무뿌리를} 삶아서別に 먹지 말고요 해요. / {느릅나무뿌리를} 삶아서 써요.	김원지(원주)				0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단 정보 음성	말단 정보 사진	표준국어 시전 음체어부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상태				되직하다	형		죽이나 풀 따위를 묶지 않고 조금 되다.	되직할 때는 인제 중간 정도지 {되직 하다고 할 수 없어요. / 주머니에다가 넣 풍가루를 넣어가지구 널풍가루 물에 개서 되직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두들겨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기	과정	마감				들기름	명		늘개로 짠 기름.	마감재로는 인제 전통으로는 우리가, 동백 기름, 호두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써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정	기초				뿔뿔	부		직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뿔뿔게 말리는 모양.	인제 처음에는 신문지 {뿔뿔} 말아가지구 <표준>직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뿔뿔게 말리는 모양.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붙이기				뜨다	동		종이나 김 따위를 틀에 퍼서 널것으로 만들 어 내다.	<그 안에 공기 차고 이러면 {뜨거우요}.>	<표준>「」착 달라붙지 않아 틀이 새기다.	이부옥(춘천)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정	염색	피로상대			뿔다	형		뿔다의 강원, 충북방인	평원 담 정도에 사람들이 먹으면 {뿔다}는 뿔뿔들이 있어요.	장성우(기평)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마감				마감재	명		건물의 결면을 마감하는 데 쓰는 재료.	물품을 한 세 번 정도 해서 말린 다음에 {마감재} 칠해요. / 직물 {마감재} 같은 거 들기름, 동백기름, 호두기름 이런 거는 짙은 게는 열물에서 삼으실, 이삼일까지 말라야 돼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건조	말르다				말르다	동		마르다의 잘못	매너들이 {말르면서} 속 들어가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도구	망치				망치	명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인제 오렇게 두드려야 되니깐 이런 쪼그민 {망치도} 저는 필요하구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마리초문양	명		단청에서, 보·도리·서까래 따위의 끝 부분에만 넣는 무늬.	<표준>단청에서, 보·도리·서까래 따위의 끝 부분에만 넣는 무늬 있어요.	이부옥(춘천)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연성품					마릿장	명		마리말에 놓고 물건을 넣기도 하고 그 위에 놓기도 하는 단층으로 된 장.	옛날에 어인내들이 머리맡에 두고 버신도 넣고 해서 {마릿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부옥(춘천)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정	보송				매우다	동		뽕려 있거나 비어 있어 곳을 뽕거나 먹다.	보송을 하고 {매졌어도} 들어가고 나간 데 가 있던 말예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뿔쿨	명		나무로 만든 뿔대.	공격을 만들어서 하드보드지로도 하구요. <표준>나무로 된 건축물의 뼈대.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문양	명		무늬의 상강새.	항자를 가지고 {문양을} 파고 또 두꺼운 {문양이} 필요하면 합지를 해요.	김원지(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원성품					반질그리	명		심, 싹새, 바늘, 가위, 고지, 굵은, 헝겂조각 등 바느질에 필요한 각종 일체를 정리해서 담아두는 그릇. 네모꼴, 여덟모꼴, 둥근 모 양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네모꼴은 주로 두껍 위에 흑색, 적색의 두 가지 색지로 색과 흰 무늬를 그려서 문 대칭되게 바늘 쪽 그 중앙에 태극무늬를 그려 붙여 장식한다. 팔각형은 적색, 황색, 녹색의 삼각형 색지를 역시 대칭으로 구성하여 중앙부에 태극 무늬를 그려 붙이고 문학 무늬 등으로 꾸민 다.	큰 거는 뭐 자기 있는 밧짐, {반질그리}, 구 집판, 소경대예요.	김원지(원주)	심화속(2006)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배짐	명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것. 한지공예의 틀이 되는 재료.	이 문양부터 밑 머리 밖으로 {배짐을} 해서 오리는 기법도 있기는 있어요. / 밑에 색을 대는 거를 {배짐이라고} 하거든요.	김원지(원주)	심화속(2006)		0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백골		명	명	한지를 여러 번 배접한 합지.	{백골은} 이제 그 종이를 갖고 틀을 만드는 거 갖다가 {백골이라} 그러요.	{2} '수공' 배대를 만들어 놓고 이직 종횡을 하지 않은 목기(木骨)나 목물(木物).	이부옥(춘천)	심화숙(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빚짐		명	명	번, 번술, 번지개와 같이 머리를 빗는 데 쓰는 물건을 넣어 두는 도구.	{번짐아래는지} 패물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머리들이 찢던 거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만들어 주구.	이재 연남 여인들이 옛날에 비녀, 번지, 노리개 이런 거를 넣어 놓고 썼어요. <표준> 빗, 빗술, 빗지개와 같은 도구. 흔히 장호지 따위를 여러 겹 붙여 기름에 걸어서 만든 것과는 무로 짜서 만든 것이 있다.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오리기			배지다		동	동	일정한 곳에서 다른 데로 벗어나다.	그 다음 돌려놓고 그 {배진} 데서 시작해서 또 {배지고} 이제 이런 뚱그렇게 되더라 / 동그렇게 가다가 옆으로 약간 굽고 거기서 나오다.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본			본		명	명	반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에 쓰기 위하여 번포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같이 이 {본을} 여기서 거다 놓고 여기서 따는 거잖아요 / {본} 만들 때 번 갈라서 예를 고내내고 합쳐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도구				사포		명	명	금강사(金剛沙)나 우리 가루, 구석(硃石) 따위의 부드러운 가루를 발라 붙인 첩이나 종이를 닦거나, 색풀이와 녹을 섞거나 물체의 거죽을 반들반들하게 문지르는 데에 쓴다.	색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포}하고 풀을 해요. / 미충 물을 잡아가지구 보충하면서 {사포를} 하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매감				생칠		명	명	소나무 표피에 상처를 내면 상처로부터 나오는 유점액의 유백성 수지.	{생칠을} 그냥 뚱뚱로 하고 있어요.	<표준> 「1」 불에 달이지 아니한 울침. 「2」 정제하지 아니한 송나무의 수지.	이부옥(춘천)	심화숙(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부재로	부재로			송진		명	명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	{송진도} 이제 벌레까지 말리고 싸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상태				송술		부	부	조금 큰 구멍이나 자국이 많이 나 있는 모양.	송술이반단이라는 거기가 {송술} 통점점이 <표준>조금 큰 구멍이 나 자국이 많아요.	김원자(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부재로	부재로			송가루		명	명	송이 아주 잘게 부스려진 가루.	{송가루도} 쓰구요.	김원자(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상태				씩씩		부	부	거칠없이 자꾸 밀거나 쓸거나 비벼거나 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마른 붓으로 {씩씩씩} 위에서 해봤지요.	김원자(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물				부디		동	동	귀신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히다.	근대 지금 물 {솔래면} 시간 걸리니깐.	김원자(원주)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염색	염색			씩을		명	명	씩을 풀어 짜낸 물.	양파껍질 삶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면 또 쪽물도 넣히구, {씩물도} 넣히구.	김원자(원주)				0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영상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기법				원각		명	명	<p>한지공예의 기법 중 하나. 기법의 공격에 한지는 추백한 후 두꺼운 모양을 오려 붙인 뒤에 색지를 두께에 따라서 1~2겹 붙이는 기법.</p>	{양각이라는} 가는 문양이 반포다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요.	원각하고 음각은 이제.. 음각은 그 문양을 문양을 따 내서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문양이 두드러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게 이제 음각이고 요. 양각은 문양이 옆으로 도드라지게 하는게 양각인데 그거는 기법에서 양각은 문양대로 따서 내베어서 그요. 양각은 버리지 않고 그 문양을 딱 붙여 양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이 부분, 중진) <표준>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끝지나 그랑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 또는 그 조각.	김원자(원주)	심화속(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완성품				오리		명	명	지호공예에서 갈조로 여러 많이 만든다.	{오리도} 짐에 있으면 좋다잖아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색				오방색		명	명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가운 들어가요. 대는 황색이다.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정	매강			울칠		명	명	가구나 나무 그릇 따위에 윤을 내기 위하여 윤을 바른는 일.	{윤칠은} 윤에 잡아넣도 돼요. / 이거는 안에 {윤칠을} 안했기 때문에 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우물기사리		명	명	우물기사리를 꼽으면 편편딱딱 해서 정색을 필요로 하는 공예품에 섞어서 사용하면 된다.	안재 정성을 좋아지게 하느라고 {우물기사리} 풀도 쓰구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기법				음각		명	명	한지공예 기법 중 하나. 바탕 색지에 문양을 파서 표현하는 기법.	이렇게 파내고 밑에 배접하고 하는 거는 {음각이예요}.		김원자(원주)	심화속(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완성품				의결이장		명	명	아래쪽을 보게 칸으로 막아서 따로 문을 마련한 2층장. 아래층에는 의탁을 놓아 보관한다. 위는 책대가 가로질러 있어 두루마기를 종류대로 걸도록 되어 있다.	<표준> 위는 옷을 걸 수 있고, 아래는 반달이로 된 장.		김원자(원주)	심화속(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완성품				이층장		명	명	두 층으로 된 장.	{이층장이라고} 그래요.		이부욱(춘천)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진지		명	명	색종이를 접어 가위로 무늬를 내어 부체에 오려 붙이는 일.	지호로 틀을 잡아깎고, 하나는 지승이고 하나는 {진지고} 그래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완성품				조족등		명	명	배진에, 받거리를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등.	{조족등} 할 때 많이 올랐어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상태	실패			주지였다		동	동	물건의 밑이 몽그리거나 무너져 내려앉는다.	이 배대 이걸 만들어 노면요. {누저앉이} 그래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상태				지북하다		형	형	조금 질다.	주머니(배)가 남용가루를 놓아가지구 남용가루 위에 개서 {지북하게} 되직하게 개서 주머니(배)다 놓아서 이렇게 두들겨요.		김원자(원주)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지승		명	명	종이를 꼬아 만든 노끈. 종이를 접다할고 길게 잘라 양지와 검지로 만들어 꼬아 만든다.	지승은 틀을 잡아깎고, 하나는 {지승이고} 하나는 {진지고} 그래요. / {지승으로} 패키지를 만드거든요.		김원자(원주)	심화속(2005)	0	0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紙花)					지화(紙花)		명	명	한지로 만든 종이. 한지로 종이를 만드는 일.	{지화는} 종이꽃이예요.		김원자(원주)		0	0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연계어부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정	벽기				깨다		동	심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곁에서 천 따위를 만들다	지승을 {짜면서} 이렇게 그 종이 한지를 안 <표준>세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곁에서 풀어 풀라기는 방법이 있어요.		정성우(기쁨)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정	재료준비			짜르다			동	동강을 내거나 끊어 내다.	한지를 이렇게 길게 {짜라서} 물을 살짝씩 <표준>동강을 내거나 끊어 내다.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정	미감			펼다			동	펼다. 밍이나 기름 따위의 더러운 물결이 뽀거나 끼어 펼들다.	들기를 해 는 거는 잘 안 {펼다가지고} 광복현에서는 절단을 강조하는 말 장이에 먹어요.		정성우(기쁨)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도구				쪽가위			명	심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죽집계처럼 생긴 작은 가위.	여기서 쓰는 건 {쪽가위를} 쓰긴 해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정	염색			쪽물			명	쪽에서 얻는 질푸른 물감.	양파껍질 삶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면 도 {쪽물도} 만히구, 쪽물도 만히구.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상태			차지다			동	반죽이나 반, 떡 따위가 끈기가 없다.	무게감도 주지만 갯벌이 들어가면은 한지가 거기에 진흙을 함치게 되면 딱반죽처럼 차지게 된다.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조배			명	정식으로 도배를 하기 전에 허용한 종이로 매벌도 도배장, 또는 그런 도배.	조배지로 {조배를} 바른 다음에 자기가 색을 정해서 밑바탕 색을 먼저 하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한지			조배지			명	조배하는 데에 쓰는 종이.	골격을 만들면 우선 {조배지를} 하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우리기			활집			명	한지공예에서 종이를 집기 위해 살짝 활자 두를 내는 것.	자희가 그거를 이제 점을라고 할 때는 한 번 {활자를} 넣잖아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공가루			명	종을 빨아서 만든 가루.	사포한 다음에 {공가루로} 종물을 입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상태				틀어지다			동	어떤 물체가 번듯하고 곧바르지 아니하고 옆으로 굽거나 꼬이다.	베를 안 하면 {틀어져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완성품				한지박			명	종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진이 없다.	포그만 {한지박}, 지금 저 큰 {한지박}, 세수대야는 해 굽구.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출검			명	어러 검이 아닌 한 검.	{출검으로} 팔 갯지 정해서 문양을 만들죠.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완성품				화병			명	꽃병	오려ん 건 {화병이라고구} 그래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화초장			명	문쪽에 유리를 붙이고 화초 무늬를 채색한 이장(衣粧)이나 의갈이장.	이런 종류는 {화초장이라고} 그러다.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활칠			명	지주도에서 나는 누런 빛깔의 칠. 활칠나무의 지진으로 만든다.	{활칠이라고} 활색 니는 칠이었는데, 활칠보다도 값이 싸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황토			명	누르고 가루스름한 흙. 집을 짓는 재료나, 공예품의 재료로 쓰인다.	그 덩어는 인제 {황토도} 쓰고, 한지하고 섞어서 써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동고리	동구리		명	베를로 등받이처럼 만든 작은 고리짝. 황토에 따라 동고렇게 생긴 것을 '동고리', 허간 모난 형태의 것을 '모제비'라 했으나 일반적으로 구별 없이 '동고리'라고 했다.	<표준>대나무 줄기나 베를기지를 축출하여 엮어서 만든 상자. 음식을 담아 나를 때 쓰며, 아래위 두 쪽으로 되어 있다.		정성우(기쁨)	심화숙(2005)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디 정보	별디 정보	표준국어 사자	표준국어 사자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한지				한지를 새김으로 한 종이.	명			이제 새 개를 붙였으면 {새함지라} 그러구.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감줄		지승공예의 재료. 두개를 엮은 끈.		명			두 개는 {감줄}이에요.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경첩공용문양		경첩모양을 응용해서 만든 문양.		명			그거는 인제 {경첩공용문양이라고} 하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구성		고리		지승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서로 풀리지 않게 엮는 것.		명			{고리} 만든다 그러거든요.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관복형		관복을 넣는 상자.		명			저한테 있는 거는 관복함도 있고요. {관복함도} 있고요. 갖집도 있고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한지	구김지		한지의 한 종류.		명			{구김지는}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요 주를 저서 말라기 때문에 주름이 막 가 있어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귀문양		한지공예에서 모서리에 들어가는 문양.		명			여러가지 응용문양이 있는데요. 문지도 있고. 띠문양도 있고 또 {귀문양도} 있고.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기하문양		다양한 도형이 연이어 있는 문양.		명			크게 나눈다면 문양이 새, 동물, 전통문양 또 {기하문양} 그렇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곤사		지승공예에서 두개의 종이끈을 꼬아서 만든 끈		명			{곤사}, 곤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꽃창살문양		꽃창살모양을 본뜬 문양.		명			창살문양, {꽃창살문양}, 우리 주위에서 문양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실수	끌어먹다		끌어먹다		동			문양 피다가 {끌어 먹어요}. 잘 바깥 안 세 문양 {끌어먹으면} 다시 하라고 그러세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날줄		지승공예에서 세로방향으로 놓인 끈.		명			{날줄}, 씨줄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이게 {날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시르기	날다		날줄하다		명			반감을 {날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칼선을 {날는디} 그러죠.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상태		불붙해지다		노르스름해지다		동			지금보다는 조금 색이 {불붙해}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한지	상태	누글누글해지다		표면이 우글우글해지다		형			이게 물이 먹었으니깐 {누글누글해}잡아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상태	누시리해다		조금 녹다.		형			{누시리하게} 붓이 잘 나갈 정도의 농도로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다식반문양		다식반모양을 본뜬 문양.		명			{다식반문양도} 있고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추재료	단죽		한지죽을 달리 일컫는 말. 지호공예의 재료.		명			인제 단죽이라고 그러서 {한지죽을} 단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단청문양		단청에 쓰는 모양이나 색깔을 이용한 문양.		명			{단청문양에도} 맥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문단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당초문양		당초문양.		명			영광이나 무늬 등을 연결시켜 만드는 것을 {당초문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부옥(춘천)		0			

07 한자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정보 말디 사진	말디정보 말디 사진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과정	마감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동백기름	명	진흙 마감재의 한 종류.	명	진흙 마감재의 한 종류.	마감재로는 인제 전통으로는 우리가 {동백기름}, 호두기름, 들기름 이런 것을 써요.	<표준> 동백나무의 씨에서 짠 기름.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지호	과정	본제거			피내다	동	한자공예에서 본이 되는 것을 제거하다	동	한자공예에서 본이 되는 것을 제거하다	예를 이런 데서 {피낼러면} 못나오겠지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과정	그리기			피다	동	한자공예에서 기본이 되는 모양대로 그려다	동	한자공예에서 기본이 되는 모양대로 그려다	내가 인제 여기 빨간 종이 색향지를 쓰겠다 하면은 빨간 색깔 한지를 위에다가 마늘지 그런 걸 놓고 고대로 그려서 {따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자공예	지승	상태	맹거모다		맹거모다	맹거모다	동	맹거모다	동	맹거모다	그림을 그려서 오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게 {맹거모시면} 못 걸러요	장성우(기평)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구성	문양		꼭실문양	꼭실문양	명	꼭실모양을 본 뜬 문양.	명	꼭실모양을 본 뜬 문양.	떡판에서 가져오는 {꼭실문양}이 있어요.	이부욱(춘천)		0			
수공예	한자공예	지호	완성품	누꺼비		누꺼비	누꺼비	명	지호공예에서 결상으로 여겨 많이 만드다.	명	지호공예에서 결상으로 여겨 많이 만드다.	{누꺼비도} 다산다복을 뜻하잖아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구성	문양		피문양	피문양	명	한자공예에서 길게 형성된 문양.	명	한자공예에서 길게 형성된 문양.	여러가지 응용문양이 있는데요. 문자도 있고, {피문양도} 있고 또 귀문양도 있고, / {피문양은} 인제 작품의 가운데까지 기복이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구성	문양		피어내다	피어내다	동	피어내다	동	피어내다	고장시킬 때 할 때 요런 거 붙여놔다가 붙으면 {피어내고} 색지작업해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문양	문양		만자문양	만자문양	명	문예품에 쓰는 만자 모양.	명	문예품에 쓰는 만자 모양.	이런 거는 다 각자문양, 자건 {만자문양}, 문양이 많아요.	이부욱(춘천)		0			
수공예	한자공예	지호	과정	마감		막여놓다	막여놓다	동	기름 따위가 꼭 스며들게 하다	동	기름 따위가 꼭 스며들게 하다	그거는 들기름 같은 걸 {막여놔요}, 짚어놔요	장성우(기평)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과정	오리기	기법	오리기	오뜨기	명	한자공예에서 오서리를 정리하는 기법.	명	한자공예에서 오서리를 정리하는 기법.	사선지기, {오뜨기}는 같은 건데 말은 두가지로 써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과정	오리기	기법	오뜨기	오뜨기	명	오뜨기의 줄임말.	명	오뜨기의 줄임말.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과정	오리기		문양따다	문양따다	동	한자공예에서 문양을 오리다	동	한자공예에서 문양을 오리다	만들어 낸다는 건데 우리 그냥 {문양따다} 그래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구성	문양		문양지	문양지	명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견본종이.	명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견본종이.	작품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문양지}였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도구	칼		문양칼	문양칼	명	한자공예에서 문양을 오릴 때 쓰는 칼.	명	한자공예에서 문양을 오릴 때 쓰는 칼.	칼도 하고, {문양칼로} 할 수 있는 거를 정지기반이라고 그래요. / {문양칼로} 그 문양을 오려내는 거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구성	문양		문자문양	문자문양	명	문자를 본 뜬 모양. 만(卍), 회(廻), 수(壽) 자 등을 쓴다.	명	문자를 본 뜬 모양. 만(卍), 회(廻), 수(壽) 자 등을 쓴다.	이런 거는 다 각자문양, 자건 {만자문양}, {문자문양}이에요.	이부욱(춘천)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과정	마감		문물	문물	명	한자공예를 다 마친 다음 광택을 내기도 하고, 버푸레기를 장재우기 위해 하는 풀이 나 풀칠.	명	한자공예를 다 마친 다음 광택을 내기도 하고, 버푸레기를 장재우기 위해 하는 풀이 나 풀칠.	버푸레기도 광택과 주고 광택도 주고 그래요. / {문물}은 {문물} 먼저는 없어요. / {문물의} 농도는 세 번이 다 디디지는 않아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자공예	전지	재료	풀이기		말기루물	말기루물	명	말기루로 쓴 풀.	명	말기루로 쓴 풀.	{말기루물은} 말렸을 때 허여지요.	김원자(원주)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정교 사진	별도 정교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동	동	말에서 인으로 날다	요기는 요기까지 와 가지고 인으로 {말어 느면은} 되거든요	정성우(가평)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기법	기법	기법	기법	기법	기법	부	부	줄을 편편하게 세우는 모양	줄 {백씩백씩} 세우기가 똑바로 세우기보다 어렵거든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명	명	문양따위를 오릴 때 완전히 오리지 않고 빈 정도도 살짝 오리는 것. 칼선이라고 하기도 한다.	{반칼을} 날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칼선을 날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 이제 반만 칼선 정도는 날는다고 그래서 {반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명	명	지호공예에서 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흰나 하면은 {범이라고} 얘데요. / 돌이 가는 이 {범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흰 수물의 길이보다 커지면 막 돈다	정성우(가평)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과장	상태	상태	상태	상태	상태	명	명	보통을 달리 일컫는 말.	한지가 {버푸래기} 일어난거든요. / {버 푸래기도} 장재워 주고 광택도 주고 그래서 작품이 다 된 다음에는 물품을 먼저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명	명	{한지공예} 지호공예에서 음복 들어간 곳이 많음.	{보충을} 하고 매꿔어도 들어가도 나간 대 <표준> 「」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 번 붙인 거예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과장	배점	배점	배점	배점	배점	명	명	조금씩 다른 색지로 덧붙임.	이거는 전체적인 배경이고 그 당에 이런 거는 {부분배점이라} 그래.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동	동	지승실을 곱.	이게 {비버지는} 거잖아요.	정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명	명	지승공예에서 날출이 흰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힘을 받쳐주는 {배대예요.}	정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명	명	한지의 한 종류.	색이 있는 건 색한지대 {뿌림지도} 있구요. / {뿌림지는} 자개 한 색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가지 색이 나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부	부	배를 곱게	문양칼로 오릴 때 오차가 생겨요 칼이 {배 물투} 기만.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완성품	완성품	완성품	완성품	완성품	완성품	명	명	시각상의 과반.	사람에 따라서 {사각과반}, 육각과반, 팔각과반, 그 각을 따지면 그렇구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구	구	지승공예에서 두 지승을 연결할 때 지승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부분을 풀어서 두 지승을 연결시키다	그러기 때문에 끝은 {사선으로} 날려서 이렇게 하면.	정성우(가평)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명	명	모따기를 달리 일컫는 말.	{사선지기}, 오따기는 같은 건데 말은 두 가지로 써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진지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명	명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된 태극.	상태극, {사태극}, 오태극까지도 있죠. / {사태극에는} 네 가지 색이고 거기서는 어두운 색이 나빠져도 상관없어요.	김원자(원주)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장	대동기				사포헤다	동	사포질을 하다	색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포하고} 품평을 해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상배천	상실로 편 천.	명	상실로 편 천.	인제 작품을 뜯히게 하느라고 잘은 다 응애 {상배천으로} 한 번 싸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상찌꺼기	상찌꺼기	명	별 쓸모없는 상.	그 덩에 {상찌꺼기라고} 그레카지구 왜 상배 만드는 상 있잖아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태극		상태극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태극.	명		{상태극}, 서태극, 오태극까지도 있죠. / 지금 이제 {상태극에도} 이걸 썼지만 조색색을 여기 넣어도 괜찮아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상합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세 번 합치는 것.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세 번 합치는 것.	이런 문양을 정하면 그 문양을 {이함으로} 올건지 상함으로 올 건지 정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색지공예	한지공예를 달리 일컫는 말. 오색공예라고 하기도 한다.	명	한지공예를 달리 일컫는 말. 오색공예라고 하기도 한다.	{색지공예를} 배웠어요.		장성우(기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합지			색한지	다양한 색깔의 한지.	명	다양한 색깔의 한지.	오색공예란 하면 저런 {색한지를} 쓰는 거예요. / 색이 있는 건 {색한진데} 뚜렷지도 있구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재료			서두를 치다	책을 엮고 책의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자른다.	구	책을 엮고 책의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자른다.	이걸 이제 저기가 여기서 반듯하게 꿰랴주는걸 이제 {서두를 친다} 그래요.		장성우(기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완성품			선비상	선비들이 쓰던 상.	명	선비들이 쓰던 상.	그런 이제 {선비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완성품			소경대	작은 좌경대.	명	작은 좌경대.	은 가는 뭐 저기 있는 빗장, 반질고리, 구절판, {소경대예요}. / 작은 거는 {소경대라고} 했는데 좌경대 중에서도 작은 거는 {소경대라고}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도구				쇠자	쇠로 만든 자.	명	쇠로 만든 자.	{쇠지도}, 심오센터자, 삼십센터자, 육십센터자, 일미터까지 필요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송송이반달이	구멍이 뚫린 경첩 문양을 붙여서 만든 반달이.	명	구멍이 뚫린 경첩 문양을 붙여서 만든 반달이.	{송송이반달이} 같은 거는 한 심함, 심오함도 하거든요. / {송송이반달이}할 때는 보통 칠합서부터 심오함까지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심오함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열 번 섞어 합치는 것.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열 번 섞어 합치는 것.	보통 칠합서부터 {심오함까지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심장생문양	심장생을 본뜬 문양.	명	심장생을 본뜬 문양.	심장생 같은 거를 주제로 하는 것이 {심장생문양}이다.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심함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열 번 합치는 것.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열 번 합치는 것.	저기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서 오함, {심함}, 칠합까지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세줄	지승공예에서 가로방향으로 놓인 끈.	명	지승공예에서 가로방향으로 놓인 끈.	벌줄, {세줄}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저기 {세줄이러} 그랬잖아요.		장성우(기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세줄날기	지승공예에서 끈을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끈을 넣음.	명	지승공예에서 끈을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끈을 넣음.	이거를 만약에 용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날줄날기죠. 아니, {세줄날기}.		장성우(기평)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방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세줄베다		동	동	한지공예에서 세줄을 더 놓다	만들다보면 이제 {세줄} 놓아야겠다. {세줄}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장성우(가평)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세줄베기		명	명	한지공예에서 면을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귀를 뺏는다			장성우(가평)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세줄베다		동	동	한지공예에서 세줄을 더 얹는다	만들다보면 이제 {세줄} 놓아야겠다. {세줄}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장성우(가평)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양파염색		명	명	양파로 물을 들임.	{양파염색} 싫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면도 쪽물도 임히구, 쪽물도 임히구.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염색지		명	명	염색을 한 한지.	얘는 그냥 {염색지}로 불인거예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예단함		명	명	예단을 놓는 큰 상자.	사주단지 보낼 때 사주나 패물이나 뭐 의류 종류를 넣을 수 있는 {예단함}이 있다.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오므리다		동	동	지승에서 서로 돌리지 않게 엮는 것의 사이를 좁힘.	각각을 좁히니까 그냥 {오므리다} 표현해 주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오방색상자		명	명	다섯가지 색깔을 풀인 전통상자.	{오방색상자}예요. 다섯가지 색이 들어갈 장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오색공예		명	명	한지공예를 달리 일컫는 말.	{오색공예}라 하면 저런 색한지를 쓰는 거예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태극		오대극		명	명	다섯 가지 색깔로 구성된 태극.	상태극, 사태극, {오대극}까지도 있죠. / {오대극}에는 오방색 들어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오합		명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다섯 번 합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서 {오합}, 삼합, 율합까지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풀이기			옥수수풀		명	명	옥수수가루로 쓴 풀.	원래는 {옥수수풀}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오리기			은칼		명	명	문양따위를 오릴 때 완전히 오려내는 것.	여기 {은칼}을 넣어서 여기 다 잘라주세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올방		명	명	올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곳.	{올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곳에서 칠을 한다 그래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완성품				오로		명	명	전통할래때 신부가 탄 가마에 놓여 둔 소변 보는 통.	시집 갈 때 영마가 {오로}를 가마에 놓여 줘요.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기법				우물두물치다		형	형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이면서 조두문양처럼 이렇게 {우물두물치게} 더 풀이는 거예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상태				올물물물		부	부	올물물물보다 나오가 들어온 정도가 덜한 모양.	이제 사선지기도 해 갖고는 그 당에 시도를 또 올물물물 한 거를 {올물물물} 한 거를 이제 없애주기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상태				올상물물		부	부	올물물물보다 좀 덜 거친 모양.	이제 사선지기도 해 갖고는 그 당에 시도로 {올상물물} 하고 올물물물한 거를 이제 없애주고도 해요.	<표준>올물물물:올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겨지기 몹시 나옴. <표준>올상물물:올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겨지기 몹시 나옴. <표준>올상물물:올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겨지기 몹시 나옴. <표준>올상물물:올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겨지기 몹시 나옴. <표준>올상물물:올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겨지기 몹시 나옴.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육각과반		명	명	육각형의 과반.	사랑에 따라서 사각과반, {육각과반}, 팔각과반, 그 각을 따지면 그렇구요.		김원자(원주)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상자				육각형에 테두리선이 있는 상자.	명	육각형에 테두리선이 있는 상자.	여기는 지혜가 지근 {육각태극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상자				육각과반을 달리 일컫는 말.	명	육각과반을 달리 일컫는 말.	재 형태에 따라서 육과반, 판과과반, 이월 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딱도 담아낼 수 있고 과지도 담아낼 수 있었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합지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두 번 합치는 것.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두 번 합치는 것.	어떤 문양을 정하면 그 문양을 아함으로 할 건지 {상함으로} 할 건지 정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한지				한지를 두겹으로 합한 종이.	명	한지를 두겹으로 합한 종이.	초보 때는 거진 {이합지를} 갖고 써요.		이부옥(순진)	이승철(2005)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정	오리기	기법			한지공예에서 문양보다 일 미리 정도 밖으로 오리는 기법.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보다 일 미리 정도 밖으로 오리는 기법.	이 문양이 {일미리따기가} 필요하다. 그러던 문양보다 일 미리 밖으로 배점을 해서 오리는 기법도 있기는 있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도구					재단할 때 쓰는 칼.	명	재단할 때 쓰는 칼.	요런 거는 {재단칼}이구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국적인 문양을 일컫는 말. 문자문양, 단청문양, 옥살문양 등이 있다.	명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국적인 문양을 일컫는 말. 문자문양, 단청문양, 옥살문양 등이 있다.	{전통문양에} 회지 문양도 있구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정	마감				기름이 따위가 꼭 스며들게 하다	동	기름이 따위가 꼭 스며들게 하다	그거는 들기를 같은 걸 맥여보요. {절여보요}		장성우(기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정사각의 점사. 한지공예로 만든다.	명	정사각의 점사. 한지공예로 만든다.	{정점사리} 그러면 요런 건데요. 요가 만드는 거로 정해서 {종이죽을} 붙이는 거예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주재료				한지죽을 달리 일컫는 말. 지호공예의 재료.	명	한지죽을 달리 일컫는 말. 지호공예의 재료.	작은 거는 소경대라고 했는데 {좌경대} 중에서도 작은 거는 소경대라고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옛날 여성들이 없어서 보던 가솔.	명	옛날 여성들이 없어서 보던 가솔.	{홀 세우기기} 참 어려운 기법이예요. 여기는 덕니우. 덕니우를 홀로 세운 거예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기법					한지공예에서 줄을 새우는 기법	동	한지공예에서 줄을 새우는 기법	{줄 새우기기} 참 어려운 기법이예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줄이로 만든 것.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명	줄이로 만든 것.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원래 {지갯은} 안이 화려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한지를 꼬아서 만든 끈.	명	한지를 꼬아서 만든 끈.	근사라고 하지 않고 {지승실이라고} 그냥 얘기 해요.		장성우(기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완성품					지승으로 엮어 만든 옷.	명	지승으로 엮어 만든 옷.	{지승주도} 만들었어요.		장성우(기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한지를 꿰매 풀려서 여러가지 부재료를 섞어 합자박, 화병, 탈 등을 만드는 것.	명	한지를 꿰매 풀려서 여러가지 부재료를 섞어 합자박, 화병, 탈 등을 만드는 것.	{지호로} 틀을 잡아 갖고, 하나는 지승이고 하나는 전지고 그래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준비					재르다	동	재르다	이걸 이제 자기가 여기서 반듯하게 {짚라주느}질 이제 서두를 짓다 그래요. / 오색치씩 {짚라서} 이 옆에를 가지런히 만드니다.		장성우(기평)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정	과정				조각조각내다	동	조각조각내다	{조각조각내서} 이렇게 붙여.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료	부재료				합살풀	명	합살풀이루로 쓴 풀.	합살풀. {일기루풀도} 쓰구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황살문양	명	황살문양을 본뜬 문양.	{황살문양}, 꽃황살문양, 우리 주위에서 문양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부옥(순진)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지다	동	동	전지공예에서 종이를 버뜨다.	나무를 떼서 거디기가 이제 뭐 기초작업을 하고 조배를 {치고} 또 색지 {치고} 했거든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철합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일러 붙인 것.	명	명	한지공예에서 문양을 만들 때 종이를 일러 붙인 것.	보통 {철합서부터} 심오할까지도 해요 / 지기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서 오람, 신타 {철합까지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오리기			칼선	문양따위를 오릴 때 안전히 오리지 않고 번갈고도 살짝 오리는 것. 반팔이라고도 한다.	명	명	문양따위를 오릴 때 안전히 오리지 않고 번갈고도 살짝 오리는 것. 반팔이라고도 한다.	그거를 이제 {칼선} 넣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 반팔을 넣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칼선} 넣는다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도구	지르기			카팅메트	종이를 오릴 때 밑에 까는 메트.	명	명	종이를 오릴 때 밑에 까는 메트.	하드보드지 있어야 하구 {카팅메트}가 필요하죠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장	물들이기			공병	공예품 따위에 주머니에 물에 갠 농용기류를 넣고 두들겨서 메꿈.	명	명	공예품 따위에 주머니에 물에 갠 농용기류를 넣고 두들겨서 메꿈.	색을 추가하고 그다음에는 시포하고 {공병}을 해요. / 그걸 부구 정판에 {공병} 하듯이 우리 작품에도 {공병}을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장	물들이기			공물	종 색깔이 나게 물을 들이는 것.	명	명	종 색깔이 나게 물을 들이는 것.	{공물}을 입히는 거예요. / 시포한 다음에 공가루로 {공물}을 입혀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종류				탈색공예	한지에 약품제형으로 해서 색깔을 빼는 기법으로 하는 공예.	명	명	한지에 약품제형으로 해서 색깔을 빼는 기법으로 하는 공예.	{탈색공예}는 탈색을 시켜서 말리는 거예요.		이부옥(춘천)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구성	문양			태극문양	전지공예에서 문양의 한 종류.	명	명	전지공예에서 문양의 한 종류.	칼을 똑바로 세워서 돌리기도 하지만 이런 {태극문양}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장				물	꽃이나 판처럼 문건을 만드는 데 쓴다. 물건.	명	명	꽃이나 판처럼 문건을 만드는 데 쓴다. 물건.	제가 보고서는 {물} 인제 만들어요. / 고기는 인제 작품을 뜬하게 하더라고요. {물}은 다음에 상배진으로 한 번 싸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장				물잡다	기본배대를 세우다	동	동	기본배대를 세우다	고기는 인제 작품을 뜬하게 하더라고요 {물잡은} 다음에 상배진으로 한 번 싸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오리기			파내다	한지공예에서 오리대를 달리 표현한 말.	동	동	한지공예에서 오리대를 달리 표현한 말.	이할을 해서 저렇게 문양을 {파내서} 배진 해요. / 한지를 여러 걸 걸쳐서 할해서 {파내다}나 한지공예에서 파내다는 문양을 오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발각과반	발각형의 과반.	명	명	발각형의 과반.	제 장태에 따라서 육과반, 팔각과반, 이할 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딱도 담아낼 수 있고 과자도 담아낼 수 있었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발과반	발각과반을 달리 일컫는 말.	명	명	발각과반을 달리 일컫는 말.	유물에 보이면 거진 육과반하고 {팔과반}을 많이 했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료				폰사	전지공예에서 꼬았던 끈을 한 개로 풀어놓은 끈.	명	명	전지공예에서 꼬았던 끈을 한 개로 풀어놓은 끈.	폰사, {폰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성우(가평)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재료	바늘			하드보드지	두꺼운 도화지. 전지공예의 뼈대. 물.	명	명	두꺼운 도화지. 전지공예의 뼈대. 물.	{하드보드지} 있어야 하구 카팅메트가 필요하죠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완성품				한복함	한복을 넣는 상자.	명	명	한복을 넣는 상자.	저한테 있는 거는 {한복함}이 있구요. 관복함도 있구요. 직접도 있구요.		김원자(원주)		0		

07 한지공예 조사어휘(정성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람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디 정보 음성	말디 정보 사진	말디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로	추제로				한지죽	명	명	지호공예에서 한지를 물에 불려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종이죽. 지호공예의 주재료.	인제 {단죽이라고} 그래서 한지죽을 {단죽이라고} 그러거든요. / {한지죽을} 만들 때 한 번 써요. / 그 다음 인제 {한지죽을} 만든 것을 조금씩 뜬어서 염지르다 쪽죽 놀라가지구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구 만드는 거예요.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과장				합사시키다		명	명	지승공예에서 두개의 끈을 같이 꼬다.	성하고 같이 표현 해 주면 {합사시킨다고} 얘기 해 줘요		장성우(기방)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합지		명	명	종이를 여러 겹 합쳐서 만든 종이.	한지를 가지고 문양을 파고 또 두꺼운 문양이 필요하면 {합지} 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합지		S	합지하다		명	명	종이를 두 장 이상을 꼰로 붙이다	한지를 가지고 문양을 파고 또 두꺼운 문양이 필요하면 {합지}해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도구				헤라		명	명	뿔이 너무 문졌을 때는 뿔도 쏘어내고 또 한지 질 붙으라고 한지 깎던용어주는 역할도 돼요. 공기포 배준다. 그때는 붓으로 짜기도 지요. 마른 붓, 풀 묻는 붓으로 해서 뿔이고 마른 붓으로 싹싹싹 위에서 해줘지요.	엿날에 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런 {헤라}가 없었어요. / 어느날부터가 인사동 거기까 {헤라}가 나와 있더라구요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상태				혀여지다		명	명	혀알게 되다	말가루풀은 말았을 때 {혀여져요}	<표>혀알게 되다.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전기	과장	마감			호두기름		명	명	호두에서 딴 기름. 한지공예에서 전통마감재의 한 종류.	마감재로는 인제 전통으로는 우리가 동백기름, {호두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써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과장	문양			호두문양		명	명	지호공예의 문양. 호두관질 같은 호과를 주는 기법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이면서 {호두문양} {합지} 이렇게 두들두들하게 더 붙이는 거예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지승	재로	추제로			출줄		명	명	지승공예의 재료. 한 개의 줄.	또로 말아가지구 이렇게 요가과는 갈 보고 {출줄이라고} 그러요. / 이렇게 {출줄}이여기다가 이어요.		김원자(원주)		0			
수공예	한지공예	전지	과장	문양			출합		명	명	한 겹의 한지.	문양 선만큼 했으면 이거를 이합으로 올린 건지 {출합}으로 문양을 펼 건지 삼합으로 펼 건지를 결정할 해야요.		김원자(원주)					
수공예	한지공예	지호	재로	부제로			합속풀		명	명	다품인 합속구의 합포.	{합속풀이라고} 닥풀이예요.		김원자(원주)		0			

찾아보기

ㄱ

감자풀84
 감칠93
 갓집94
 갯벌105
 격자문양81
 겹줄98
 경첩응용문양80
 고리 만들기101
 고비94, 96
 골격77
 관복함94
 구김지83
 구절관96
 귀문양82
 기하문양78
 길조길상문양78
 꽃창살문양80

ㄴ

나비문양78
 날줄98
 날콩가루108
 놀놀해진다108
 누시리하다84

ㄷ

다식관문양80
 닥죽105
 단청문양80
 당초문양78
 동구리103
 동물문양78
 동백기름93

떡살문양80

ㄹ

머리초문양80
 머릿장94, 95
 모따기88
 모따다88
 모딱88
 목골77
 목기(木器)77
 목물(木物)77
 문양 붙이기93
 문양따다90
 문양갈85
 문자문양78, 81
 물 스펀지99
 물풀93
 물풀칠93
 밀가루풀84, 105

ㅁ

박쥐문양78
 반칼88
 밥100
 배접하기91
 백골77
 보충하기108
 본104
 부분배접91, 92
 붓86
 비비다100
 빚지75
 빗집94
 빠지다90
 빼대100

뿐98
 뿐(분) 만들기107
 뿌림지83

人

사각과반96
 사선치다88
 사태극81
 사포106
 삼베천105
 삼베천 붙이기107
 삼찌꺼기105
 삼태극81
 삼합지83
 색지공예74
 색한지83
 색한지 치다90
 서두를 치다99
 선비상94
 소경대94
 송진105
 송송이반단이94
 숯가루105
 십장생문양78
 쪽물102
 씨줄98
 씨줄넣기102
 씨줄빼기102

ㅇ

양각기법93
 양피염색102
 염색지83
 예단함94
 오방색상자97
 오색공예74
 오테극81
 옥수수풀84
 온칼88
 옷칠93, 109
 요로103
 우뭇가사리105

유황105
 육각과반96
 육각태극함97
 음각기법93
 응용문양78
 의결이장94
 이층장94
 이합지83
 일미리따기91

ㅈ

자85
 재단칼85
 전지74
 전지공예74
 전체배접91
 전통문양78
 접착제106
 정접시96
 조족등103
 종이죽105
 종이죽 만들기106
 좌경대94
 지갓94, 95
 지승공예74
 지승끈98
 지승실75, 98
 지승옷103
 지호공예74, 76
 지화(紙花)공예74
 쪽가위85
 쪽물102

ㅊ

참쌀풀105
 창살문양80
 초배 치다89

ㅋ

칼선 넣다88
 칼집 넣다88

콩뽕하기108

ㄷ

달76

틀104

ㅌ

팔각과반96

팔각태극함97

폴칠93

ㅎ

한지죽105

한지죽 붙이기107

함지막76

합사시키다100

혜라86

호두기름93

호두문양104

흔줄98

화병76

화초장94

황촉풀105

황칠109

황토105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정성미(강원대학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7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1월 27일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